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439-01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 7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 07.

KOICA

저자

▶ 연구책임자

전 수 민

- 現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Email: smjeon@koica.go.kr)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협력전공 박사과정 수료

▶ 주요 경력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 방안. KOICA 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KOICA 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7호, 한국국제협력단, 2012

▶ 주요 학술연구 실적

- ASEAN+3's Lessons from EU Integration, 유럽연구 제 30권 2호 (공저), 한국유럽학회, 2012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국문 요약 / iv

Abstract / viii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주요 질문	3
4. 연구의 구성	4
5. 연구 방법	4
제2장 전통지식 개요	5
1. 전통지식 개념과 특징	5
2. 전통지식 도입 배경	8
3. 전통지식 적용 분야	15
제3장 전통지식과 개발협력	19
1. 관련 이슈	19
2. 개발협력사업에서 전통지식을 적용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	31
3. 개선방안	35
제4장 전통지식의 지역개발사업에의 적용	37
제5장 결론	51

참고문헌	56
------------	----

참고자료

참고 1. 전통지식의 정의(UN 기구 중심)	61
참고 2. 전통지식과 기후변화 지식 플랫폼	62
참고 3.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63
참고 4. 선진국-개도국(North-South) 개발 지식 위계	64
참고 5. IFAD의 지역사회의 웰빙, 소득,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역량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65
참고 6. 전통지식의 식량 안보 개선 및 농촌개발에의 기여도	66

표 목차

<표 1> 전통 지식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협약, 선언문)	11
<표 2> 전통지식의 유형 분류 및 특징	16

글상자 목차

<글상자 1> 전통지식 사례	6
<글상자 2> 개발협력의 인권기반 접근법에 대한 공동 이해	30
<글상자 3> DFID 인도 서부 오리사 생계개선 프로젝트 (DFID Western Orissa Livelihoods Project(WORLP) in India)	41
<글상자 4> DFID 전통지식 활용 지역개발사업 사례	43
<글상자 5> IFAD의 전통지식 추진 및 혁신 사례	46

<국문 요약>

1970년대 중반 기존 서구 중심의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 확산에 따라, ‘대안적’ 이론과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로 ‘참여적 접근법(개발)’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역민들의 지식이 개발협력에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전통지식이 개발협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개발협력 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 또는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한 방법으로 전통지식 도입 및 활용을 모색하고자 했던 World Bank와 UNESCO는 개발을 위한 전통지식과 우수 사례를 정리하는 등 전통지식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국제법 상에서 토착민과 지역주민들의 국제 인권과 인식에 대해 강조하게 되면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지식의 개념, 등장배경, 발전단계 및 활용분야에 대해서 분석하여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둘째,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이슈, 즉 권력관계,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생물 및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셋째, 전통지식을 개발협력사업에서 시행할 때 제약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기존 공여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약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KOICA가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게 될 때 필요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대를 거쳐 지역사회에 속하고, 이미 실행되어온 지식, 기술, 태도의 총합의 역동적인 archive’로 정의할 수 있는 전통지식은 농업, 보건, 지역사회 개발, 빈곤감소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통지식은 지역사회, 특히 빈곤층을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 효과성을 넘어 개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지역민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운영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개발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전통지식은 지식과 권력관계, 생

물 및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및 사회적 자본, 인권기반 접근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은 권력의 위계구조 내에서 지식에 있어서도 서구 근대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발을 위한 지식에 있어서 과거 정치적 관점에서 보듯 위계를 구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도적 지식보다 전통지식이 대안적 관점으로 등장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주인의식의 경우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참여적 접근법의 핵심적 요소로서 단순히 외부인이 주도하는 사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업을 실제 이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고 천연자원을 활용 및 보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의 일부로서 전통지식을 보게 될 때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란 측면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 전통지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가지는 전통지식이 문화와 생물다양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전통지식은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사회적 신뢰이자 유대감의 토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회를 유지 및 통합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인권기반 접근법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은 지식을 가진 지역주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참여의 기회를 가져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적용 및 활용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첫째, 전통지식이라는 개념을 너무 근사하게만 보는 경향에 있다는 점이다. 전통지식을 외부와는 별개로 발전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지만, 세계화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전통지식이 항상 지역개발에 있어서 적정하다는 가정을 내리는데 있다. 모든 전통지식이 지역개발에서 성공요소로 작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행위자가 실행하는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전통지식의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은 반드시 집합적이거나 균일한 형태를 이루지 않는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권력과 관련될

경우 오히려 개발협력사업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전통지식과 서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활용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초기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행된 전통지식의 축적 및 체계화 노력에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전통지식이 인간의 삶에 연계되고 지역 특수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기록하고 저장하려는 방식이 맞지가 않다고 보았으며 전통지식의 역동성과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 이런 보존 방식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지역특수성은 다른 지역으로의 효과적 확대라는 ‘보편성’의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제약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개발협력사업 모든 단계에서 전통지식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고, 개도국의 경우 전통지식 체계 인식과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개발협력기관은 지역사회의 통찰력과 전통지식을 확인하여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앞서 보편성의 측면에서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한 전통지식은 오히려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동등한 파트너십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을 활용하려는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DFID의 경우 전통지식이 사업실행에 있어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통지식의 유지 및 업데이트를 통해 기관의 노하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지 사무소에 채용된 현지 스태프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확인한 바 있다. CIDA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사례를 볼 수 있다기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핸드북 발간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의 전통지식을 통합시키는 방안과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IFAD는 기존 선행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여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기술과 방법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에 적용된 실제사례에서도 전통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도적, 참여중심적 접근법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수성을 인식하며, 전통지식 및 관련 이니셔

티브가 개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볼 때, 한국의 원조기관들은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어떻게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대상지의 전통지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전조사단계에서 전통지식을 분석 및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 단계에서 현지에 대해 잘 알고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현지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업 평가시 작성하는 평가목록 중 현지지식 부분을 추가하여 투입한 기술이 전통지식 측면에서 잘 부합하는지, 개선된 정도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지식은 해당 지역에 투입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투입요소나 기술이 유사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 실행한 전통지식을 도입한 지역개발사업 사례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 또는 타국가의 다른 지역에 즉각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지식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식을 존중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전통지식은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투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 설계에서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사업 전반에 전통지식을 연계하고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From the mid-1970s, alternative development theories and approaches appeared in response to the recognition that western-based approaches failed to provide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e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The participatory approach is one of these alternatives, and it highlighted the need to take account of and use the knowledge of local people in development. More participatory approaches advocated for the involvement of the recipients of development by accessing and culminating their knowledge of local issues. Since then,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interest in local knowledge for development as well as initiatives to share local knowledge on a global scale by development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and UNESCO. Such growing emphasis on local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 also due to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in international law.

The study aims to: firstly, identify the definition, background, features, and applicable fields of local knowledge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ing on it; secondly, identify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ocal knowledge for development, analyze the relevant issues such as politics of knowledge, sustainable development, ownership,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thirdly, analyze the challenges of introducing and applying local knowledge to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find a way to deal with those challenges; fourthly, identify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made to promote local knowledge for development from case studies of DFID, CIDA, and IFAD; and fifthly, draw the implications that Korean aid agenc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KOICA should consider and apply in th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of projec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Defined as “dynamic archive of accumulation of knowledge, technology,

attitudes which have existed and belong to specific local communitie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local knowledge could be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like agriculture,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Especially, local knowledge is available to provide solutions to problems of the poor, increase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programs,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ownership of local communities, leading to the succ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Local knowledge seems to have certain and specific relevance to issues such as politics of knowledge,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 ownership, social capital,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issues with local knowledge, it is concluded that local knowledge is closely linked with those issues and could be promoted if it is agreed and based on the principles which each issue emphasizes.

However, there also have been a lot of challenges when development practitioners and aid agencies have tried to introduce and adopt local knowledge to the project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of projects. First, much of the earlier research on local knowledge tended to romanticize the notion of local knowledge. Second, there is a problem with assuming that local knowledge is always appropriate for local development. Third, the political dimension of local knowledge cannot be neglected. Fourth, separating local knowledge and western (modern) knowledge has been criticized. Furthermore, in terms of the efforts to accumulate and systemize local knowledge since the mid-1970s, the way to document and store local knowledge is inappropriate due to the feature of local knowledge (link to human life and local specificity). Local specificity also begs the question of how practitioners can scale up in terms of “universality.”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it is suggested that: firstly, decision-makers

need to recognize the role and importance of local knowledge at every level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econdly, aid agencies should identify the insight and knowledge of local communities and enhance their efforts to adopt local knowledge to the projects; and thirdly, local specificity could be an opportunity to support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according to equal partnerships with aid agencies.

In the study, DFID, CIDA, and IFAD have been selected as aid agencies that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local knowledge and tried to utilize them in projects for a long time. At DFID,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the need to leverage local knowledge, and local knowledge needs to be maintained and updated over time in order to develop it into know-how. CIDA, on the other hand, has published a guideline and handbook with basic principles and strategies to integrate local knowledge in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Lastly, IFAD has identified lessons from their good practices; they emphasize the participatory approach and have tried to find ways to support local knowledge in each project. As the community-driven and participatory approach has been emphasized, it is believed that respect for diversity and recognition of local specificity are commonly agreed upon by practitioners and ai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efforts of the development agencies, the question of how aid agencies can introduce local knowledge and apply it to projects has been raised. First, a detailed research on the target area and local people is needed in advance. Second, during the feasibility study, aid agencies should construct project contents systematically while considering local knowledge on the areas. Third, 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experts who are well aware of the local area (including local knowledge) and have an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needed. Fourth,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by identifying them as active actors and knowledge bearers. Lastly, at the project assessment stage, by adding the issues related to

local knowledge to the assessment list, it is needed to consider whether technology in the project could be matched to local knowledge and how it works to ameliorate the livelihoods in local communities compared to the situation before the project.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을 위해 시작된 원조는 그 중점이 시대적 상황과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초기 경제성장에서부터 평등, 기본 욕구, 참여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해갔다. 전통 지식에 대해 강조하게 된 것은 지난 세기의 중앙집권화(centralized)되고 기술 중심의 해결책에만 치중한 나머지 세계의 다수 빈곤층(소작농, 소영농인)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실패하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에게 관심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더해 상대적으로 소외된(marginalized) 빈곤층이 갖고 있는 지식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Agrawal, 1995).

국제사회에서는 지식의 원천(source) 측면에서 선진국 주도가 아닌 수원국의 전통지식에 기반을 둘 때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에 기반한 개발(knowledge-based development)은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주도적 패러다임'으로서 선진국에서 수원국으로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상향식(bottom-up)의 참여중심적 접근법으로서 수원국의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개발협력 사업 실행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Talyarkhan *et al.*, 2004:7).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은 후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은 지역 수준에서 지역사회가 식량 안보, 인간 및 동물 보건, 교육, 천연자원관리와 기타 중요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토대로 활용된다. 전통지식은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이자 스스로의 삶을 운영해나가기 위한 노력의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리오 선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문서와 국제행사들에서 전통지식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WIPO, ILO, FAO, WHO, UNESCO, UNDP, UN 인권 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의 국제기구는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UNESCO와 국제학술연합회의(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가 조직한 세계과학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Science)의 ‘과학과 과학지식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Science and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에서 다양한 인간 활동(human endeavor)을 위해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존중하며 사용을 권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ICSU, 2002). 또한 2006년 6월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UN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권고함에 따라 발표된 ‘토착민에 대한 UN 선언문(UN Declaration on Indigenous People)’은 ‘전통지식, 문화, 전통 실행법에 대한 존중이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개발과 환경의 적정관리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하였다(Kothari, 2007).

세계은행은 1997년 6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글로벌 지식 컨퍼런스(Global Knowledge Conference)에서 전통 지식을 배우고, 보존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를 위한 ICT 파트너십(Partnership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Africa) 맥락에서, 세계은행은 개발 과정에서 전통 지식의 인식, 활용, 교환을 촉진하는 전통지식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98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전통지식(Indigenous Knowledge for Development Programme)’을 착수하였으며, 전통지식이 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분석을 이행해왔다(Gorjestani, 2004). 주요 목적과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보의 보급이다. 전통지식 이행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판물과 전자문서 형태로 사례연구를 출판한다. 둘째, 개도국 지역사회에서 정보교환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전통 지식 공유를 위해서 지역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전통 지식을 확보 및 보급하는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셋째, 개발 단계에 전통 지식을 적용한다. 개발 파트너간 전통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세계은행과 개발 파트너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전통지식 활용을 권장한다. 넷째, 파트너십 구축이다. 지역사회와 NGO로부터 학습하고, 파트너의 제한된 자원을 잘 활용하며 전통 지식의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응한다(World Bank, 미상).

세계은행(World Bank) 외에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등의 기관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의 중요성 및 개발을 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개발협력사업에

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2013년) 연구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전통지식이 개발협력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여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전통지식 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참여도 증진, 역량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전통지식에 대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적용 현황, 국제기구와 원조기관의 운영 방안 분석을 통해 전통지식의 중요성 확인 및 개발협력사업에의 전통지식 도입 방안을 도출한다.

첫째, 전통지식의 개념을 확인하고, 등장배경과 발전단계 및 활용분야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이슈, 즉 권력관계,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생물 및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셋째, 전통지식을 개발협력사업에서 시행할 때의 제약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기존 공여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약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한다.

넷째, 개발협력에서 개도국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게 될 때 필요한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주요 질문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전통지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여 발전되어 왔고, 개발협력과의 관련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또한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지식 활용사례와 시사점 분석을 토대로 한국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효과성을 더하기 위해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개도국의 전통지식이 개발협력에서 강조되는 이유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 개도국의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사업에서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이 노력해 온 사례와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 전통지식 활성화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전통지식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기존 공여기관은 어떻게 노력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분야에서 전통지식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을 명시한다. 제 2장 전통지식의 개요에서는 전통지식의 개념 및 등장배경 정리, 전통지식의 적용(가능) 분야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이 등장한 배경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개발협력분야에서 전통지식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한다. 그리고 개발협력사업에서 전통지식을 도입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제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 4장에서는 전통지식을 개발협력사업 중,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5.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성된다. 전통지식이 개발협력 분야에 도입된 배경 및 추진 현황, 활용 사업사례와 관련한 논문 및 자료에 토대로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및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현지에서 ODI 담당자와 맨체스터 대학교 담당자와 전통지식과 개발협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기간 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착수·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단내외 검토의견을 수렴하며,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종합 평가의견, 자문을 토대로 KOICA 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 전통지식 개요

1. 전통지식 개념과 특징

국제사회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지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지역민들(전통지식 보유자)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게 해준다. 전 세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 속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해오고 있다(Yigzaw *et al.*, 2010).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¹⁾. 대체로 ‘세대를 거쳐 지역사회에 속하고 실행되어온 지식, 기술, 태도(attitudes)의 총합의 역동적인 archive’로 볼 수 있다. 이런 전통지식은 공유되고, 적용될 때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 영양, 소득과 비즈니스, 교육, 정치, 건축과 설계 등의 영역에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Ocholla, 2007).

전통 지식은 local, traditional, indigenous 지식 등과 혼용되고 있다²⁾. Kotari(2007)와 Ocholla(2007), Tabuti and Van Damme(2012)의 연구에서는 해당 용어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FAO(2004)의 경우 해당 용어 중 ‘local’ 지식을 내용이나 origin 측면에서 가장 덜 편향된 것으로 보고 있다. traditional이나 indigenous 지식은 local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 있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는 점이 있거나,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본다. local과 indigenous 지식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전된 지식으로서 대학, 정부 연구센터, 민간 산업 등에 의해 만들어진 ‘서구’ 지식시스템(WKS: Western Knowledge Systems)이라고 불리는, 국제 지식 시스템 또는 과학적 지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Oluwatoyin Dare, 2009). 이에 반해 Srikantaiah(2008)는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용어에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local’ 지식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1) 참고 1. 전통지식의 정의 참고.

2) Oluwatoyin Dare(2009)는 일부 학파의 경우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local, traditional, indigenous 등의 용어 보다는 ‘endogenous’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는 local, traditional, indigenous 등의 용어가 민중(grassroots people)과 관련된 지식 체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드시 원산의 지식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해당 지역의 주류와 비주류 지역사회의 모든 지식으로 본다. 이에 반해 ‘traditional’ 지식은 지역사회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화에 근거한 실행 또는 관습이 지속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과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혼재가 각각의 지식과 활용 상황에서 오해를 유발해왔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통지식은 현지에 기원을 두고 오랫동안 발전해온 지식과 더불어 외부의 지식이 도입되어 현지화된 지식까지로 보기로 한다³⁾.

전통지식의 주요 특성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지식은 광범위한 문화 전통 속에 있는, 특정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의 것이다. 둘째, 쉽게 성문화할 수 없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이다. 셋째, 전통 지식은 모방과 시연을 통해서 또는 구두로 전달된다. 넷째 이론적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실제 참여한 결과이고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실험적 지식이다. 다섯째 전통지식은 반복을 통해 학습된 것이며, 반복은 기억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강화시킨다. 여섯 번째로, 전통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여 생산되는 만큼 재생산되고, 손실되는 것만큼 발견될 수도 있다(Ellen and Harris, 1996; Woytek *et al*, 1998; Ocholla, 2007).

<글상자 1> 전통지식 사례

* 중앙 아프리카 전통치료법(healing practices)

중앙아프리카는 약용식물 품종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약용식물은 서양에서 수입해온 처방전 약(prescription medicine)만큼 효과적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것이며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 후 주술사나 전통 치료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중앙 아프리카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문화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 자각, 평가’라고 하는 기능에 따라 수반된다. 원인을 진단하여 증상을 치료한다. 근대 서구 보건에 있어서 더욱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통치료법은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까지 다루기 때문이다. 중앙아프리카 전통치료법은 수치료(hydrotherapy), 열요법(heat therapy), 척추 도수치료(spinal manipulation), 격리(quarantine), 접골 및 수술(bone setting and surgery) 등과 같

3) 전통지식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범위는 영국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14.5.28, 30) 및 문헌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4) 전통지식의 이런 특성들로 인해 전통지식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주류에서 배제되는 marginalisation을 겪게 된다. 특히 성문화되거나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하므로 지식의 전수나 공유가 어렵고, 지식을 가진 자의 기억속에만 존재하고, 그 또한 구두로 남아있으므로 전수되지 못한다면,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통 지식은 특정 지역의 문화, 전통, 가치관, 언어, 종교 등에 내재되어 있어서 보편적이지 않고 세계화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므로 다문화적이고 도시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역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Ocholla, 2007).

이 현대 의학에서 활용되는 공동의 원칙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전통지식을 확인함에 따라, 많은 서구 제약회사들이 지역의 전통 치료사들의 지식을 확인하고 지역의 약용식물들을 연구하여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빈곤과 부채에 시달리는 지역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용식물들은 많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활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Gnetum africanum*와 *Gnetum buchholzianum*을 볼 수 있는데, 가봉, 콩고, DR 콩고 등에서 나는 이 식물은 영어권에서는 koko라 불리고, 프랑스권 카메룬에서는 eru와 okok이라고 불린다. 이는 약용이자 식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용식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일부 식물의 경우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멸종위기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더해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해 지역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 케냐 기후변화 적응

(기후 예측과 적응 기제에 지역 및 전통 지식을 통합하여 농민들의 적응 능력 증진)

케냐 기상청(Kenya Meteorological Department, KMD)의 기후 및 계절별 강수량 예측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높아졌으나 농가 단위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농민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 특수적 예보는 불가능했다. 역사적으로, 케냐 농민들은 강수량 예측을 위한 다양한 지역 지표를 활용해왔는데, 최근의 계절별 강수량 패턴에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전통 지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신뢰도가 더 높은 정보는 농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역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나 필요한 때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예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역량이 부족한 이유였다. 지역 특수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민들의 기상 예보 활용 능력을 강화시켜주었다. 그에 따라 '변화하는 기후내에 위험 관리, 취약성 감소, 농업 생산성 증대'라는 프로젝트를 참여적 연구 접근법을 이용하여 케냐의 몇몇 지역(Kitui, Mwingi, Mutomo) 소농들이 실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 특수적, 사용하기 간소화된 기후 정보 개발에 목적을 둔다.

첫 단계는 1957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해당 지역의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다양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지역 수준의 기후 변동(variability)을 확인하는 계절별 예보 역량 평가를 위해 외부 지식을 사용했다. 2007년 이후 3년간 농민, 지도 보급사, 농업 연구자, 기상청은 함께 **축소한(downscaled)(지역 맞춤형의) 기후 예보기**를 개발했다. 지역 지도자, 농민, 지도 보급사로부터의 조언 등이 해당 과정에 활용되었다. 여기에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강수량을 어떻게 구별하고 지역 기후 변동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농민 고유의 기후 예측 및 결정을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지역과 외부 지식의 연계는 기후 예측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의 정확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각 계절별 축소한 기후 정보를 만들어낸 이후에, 농민, 지도보급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정보 가용률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측한 강우 상황과 이를 농업자문 게시판(agroadvisory bulletin)에 공개하기에 적합한 기술인지를 확인하였다. 이 게시판은 연구에 참여하는 농부들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보급되었다. 농민 개개인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시행할 적절한 방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참여 농민들은 계절별로 내린 결정을 계속해서 기록했다. 농민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시행하는 통제 농장(control farm)이 농업자문 게시판에 안내된 추천받은 관리 선택사항을 따르도록 준비하였다. 각 계절이 끝날 즈음에 계절별 강수량 정보, 시즌전 결정과 관련한 농업 결과와 통제 농장 성과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분석했다. 소농들에게 축소한 기후 정보를 준비하는

것은 생산성과 지역 적응력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성과 함께 개선된 농업 기술을 적용하게 해주었다. 모니터링과 평가 기간동안 농민들은 축소된 기후 전망이 더욱 적절한 농업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명시하였다. 다양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 것에 더해 농민들은 기후 예측에 명시된 정확성에 대해 인상깊어했으며,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계절의 첫 강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출처: Eyong, 2007:125127; Ndegwa *et al.*, 2010

2. 전통지식 도입 배경

앞서 전통지식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가지는 지식이라고 단순히 정의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전통지식이 등장한 배경은 세계대전 후 개발협력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주요 패러다임으로 근대화(modernisation)와 서구로부터의 기술 및 지식 전수가 개도국이 처한 빈곤과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상대적으로 제3세계(개도국) 주민들의 전통지식은 비과학적이고, 퇴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겼다. 1970년대 중반부터 근대화에 대한 대안적 개발 접근법(참여중심 접근법 포함)이 등장함에 따라 이전에는 경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민들의 지식(전통지식)이 적극 고려되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를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전통 지식의 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발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서 서구의 지식으로부터 전통 지식을 차별화하는 노력⁵⁾은 훨씬 예전부터 있어왔다. 중점을 뒀다 하는 타당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전통지식을 발전시킨 것은 인류학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전통 지식이 등장한 것과는 달리 인류학에서는 이런 지식과 활용 연구가 개발을 위한 존재(being)라기 보다는 학문적 목적으로 여겨졌다. 그런 점에서 개발을 위한 전통 지식은 그 연구가 다른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학에서의 접근법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Smith, 2012; Hagar, 2003).

국제사회에서는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회의와 문서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해오고 있다. 그 중, 1992년 UN 환경과 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리오 선언(Rio Declaration)⁶⁾과 어젠다 21(Agenda

5) Smith(2012)는 그 예로 Huntington과 Fernandez-Gimenez(1999)의 연구를 언급하고 있다. 북극에 간 서구 탐험가들이 이누이트 종족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 지식을 활용하여 의복, 거주지 등을 만드는데 활용해왔음을 주목했다. 1940년대부터, 북극의 과학자들은 지역민을 연구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이를 서구에서 온 과학자, 연구인력, 탐험가들이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서구의 지식과 전통지식간의 차별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21)에 전통지식을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조약(Convention on Biodiversity)의 제 8조에 “전통 지역 커뮤니티의 지식, 혁신, 실행”을 중점으로 하여 명시하였다. 전통 지식이 강조된 배경은 국제사회의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93년 12월 21일 UN 총회에서 전 세계의 3억명 이상의 토착민들의 상황을 1995년에서 2004년 동안 개선시켜줄 것을 결의하였다⁷⁾. 그에 따라 ‘세계 토착민 10주년’(이하, 제 1차 10주년)은 인권, 환경, 개발, 교육과 보건 등과 같은 영역에서 토착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1994년 12월 9일에 공표되었다(UN, 1993). 해당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는 UN과 산하 기관에서만 아니라 다수 국제사회에서 전통 이슈가 의제로 상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UN 지역 고유문제에 대한 연구 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이 설립되어 정부와 전통 기관간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착민을 위한 기념일이 정해졌고, 인권위에 의해 토착민의 인권과 자유 보장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임명되었으며, 자발적 기금(voluntary fund)을 조성하여 토착민들이 UN 회의에 참가하고, 그들이 작더라도 직접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⁸⁾. 긍정적인 성취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제는 남아있다고 보인다. 그 중 하나로 UN 시스템 내에서 거둔 성과를 전통 지역사회로 전달하는데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UN과 UN 산하 기관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협력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 토착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초안의 채택이 어려웠는데, 제 1차 10주년 기간 동안 선언문을 완성하기 위해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었지만 토속 단체와 정부 단체간 조항 채택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한 이내에 비준(provisional adoption)을 위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ECOSOC, 2004;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 웹페이지⁹⁾).

6) 리오 선언문의 원칙 22는 ‘토착민과 그들의 지역사회는 지식과 전통적으로 실행해온 바 때문에 환경 관리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그들의 정체성, 문화, 기호를 지원하고 지속가능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토착민의 관점에서 볼 때, 리오 문서의 가장 큰 약점은 주도적인 개발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7) UN 헌장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과 인종, 성별, 언어와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달성에 있음을 유념하여, 1990년 12월에 발표된 결의안이 1993년을 토착민의 해로 선언함에 따라 토착민의 1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UN, 1993). 이에 더해 1995년 이후로는 8월 9일을 세계 토착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8) UN(2004:17-18) 보고서에 따르면, 난제 중 하나는 인권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보호에 있어서 두가지 이슈가 강조되는데, 그 중 하나는 국가 수준에서 인권 기준을 실행하는데 역부족인 것과 관련있으며, 두 번째는 토속민 권리 선언문 초안 채택의 실패라고 본다. 다른 난제로는 프로그램을 회원국이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토착민의 발전 및 권리와 이를 지원하는 UN의 역할을 촉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후 2004년 12월 UN 총회에서 ‘제 2차 세계 토착민 10주년’(이하 제 2차 10주년) 수립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를 제 2차 10주년으로 공표하였다. 제2차 10주년의 주요 목표는 문화, 교육, 보건, 인권, 환경·사회·경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심적 프로그램과 구체적 프로젝트 실행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기준 수립 활동을 통해 토착민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구체적 행동계획을 통해 분야별 이행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추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정부, UN 기관, 기금과 프로그램, 정부간 기관, 전통 및 비정부기관, 시민사회 행위자가 제 2차 10주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UN, 2005). Post-2015 개발 의제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27일에서 12월 19일까지, 지역고유 문제에 대한 영구 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사무국과 UNICEF가 공동으로 주관한 “Addressing Inequalities” 분과 중 “토착민과 불평등(Indigenous Peoples and Inequality)” 소분과에서 e-discussion을 가졌다. 토착민을 위한 중점 분야는 다음 7가지로 정리되었다: 1) 국가/국제 수준에서 토착민 인식; 2) 토지, 영토,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같은, 토착민의 권리 인식; 3) 국가 수준에서 이문화간, 문화적 민감 정책 입법; 4) 토착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특수 상황과 수요 우선시; 5) 문화를 지속가능 발전의 네 번째 영역으로의 인식과 전통 관점에 문화와 정체성 포함; 6) 토착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전통보승인에 대한 권리 입법; 7) 토착민과 관련한 개발 이슈를 위해 파트너십 구축. 본 요약문에서 전통 지식이 개발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Online Discussion Synopsis, 2013).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공여국 기관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은행(World Bank)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세계은행은 개발을 위한 전통 지식 프로그램(Indigenous Knowledge for Development Program)을 착수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전통 지식을 인식, 활용, 교환하는 것을 진작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적은 정보를 보급하고, 개도국 지역사회간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개발 과정에서 전통 지식을 적용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Woytek and Gorjestani, 1998). 이와 관련하여 전통지식의 적용과 실행을 통한 효과적인 개발 이슈를 다룬 IK Notes를 발간하였고, 전통지식 실행에 관한 특정 국가 사례, 국가내 지식의 정보원,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 등을 종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패키지(Knowledge Packs)를 구축하였다. 전통지식 프로그램은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십여년간 운영되었으며, 2007년 6

9) <http://www.iwgia.org/> (2014년 4월 16일 검색)

월 30일로 종료되었다(Srikantaiah, 2008:100).

UNESCO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지식이 주요 분야로 부각되었다. 1999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세계 과학 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Science)에서 해당 이슈는 강력한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 세션으로 ‘과학과 지식의 기타 체계’가 구성되었다. 전통 지식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권고안은 UNESCO와 국제학술연합회의(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가 공동 주관한 본 행사에 참여한 150여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UNESCO 회원국들은 1999년 10월에 개최된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전통 지식에 중점을 두고, 다음 중기전략(2001-07)에 전통지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문화 분야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은 ‘무형문화유산’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통해 확인되었고, 특히 민속(folklore)과 전통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왔다. 제1차 10주년(Decade of Indigenous Peoples(1994-2004))에서, 문화적 권리와 토착민 이슈는 UNESCO에 있어 큰 의미가 있으며 전통지식 영역과 명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자연과학, 사회 및 인문과학, 문화, 교육과 의사소통을 위한 영역 전반에 통합적 행동계획을 위한 제안사항을 상술하고 있다(Nakashima *et al.*, 2006). 이후 UNESCO는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Programme(MOST)이 네덜란드 고등교육/전통 지식 국제협력 기관(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Indigenous Knowledge, NUFFIC/IK-Unit)과 공동으로 “Best Practices on Indigenous Knowledge”(1999)와 “Best Practices Using Indigenous Knowledge”(2002)를 발간하여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와 성공 사례 등을 정리한 바 있다.

<표 1> 전통 지식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협약, 선언문)

	정책	내용
토착민, 인권, 자결권 (Indigenous People and Human Rights, Self-Determination)		
1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ILO) 1957	토착민의 문화/종교 가치 및 사회 통제 유형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HCHR) 1966	자율의사결정과 최저생계의 수단에 이를 수 있도록 개인 및 민족의 권리 보장.
3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ILO) - revised in 1989	토착민이 발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리 수호를 촉구.
4	UN Declaration o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PFII) 2006	자율의사결정과 문화, 자원, 지식에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권리 선언

생물다양성, 전통 지식과 지역사회(Bio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and Communities)		
5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992	다음 사항을 촉구함 · 전통 문화를 존중, 보존,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호의 원칙에 맞게 생물자원 사용 · 전통지식 보유자간 균등한 혜택 제공 보장 · 이해관계자간 상호간 동의한 바에 따라 생물자원과 관련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구함 COP10/Decision 20은 보건과 환경자원을 각각 담당하는 관련 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생물다양성과 보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Strategic Pla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 - 2020과 관련된 Aichi Diversity 목표를 설정(Target 14는 특히 보건과 생물다양성 연계를 언급하였고, 생태계 복구, 유전 다양성 등과 같은 이슈를 포함하는 분야와 기타 target을 연계함) 국제사회 레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프로토콜 포함(자원, 지식, 실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와 관련된 접근성과 혜택 공유에 대함)
6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1994	생태학적 발전과 관련된 전통지식 활용과 보호 권고 (관련된 지역 주민에게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로 인해 얻는 혜택을 적정하게 돌려주고자 하며, 국가 입법, 정책, 전통지식 교류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함)
7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ITPGR), FAO 2001	식물유전자원 사용에 관한 혜택 공유와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해 농부의 권리와 전통지식을 단언함
전통지식과 개발 (Traditional Knowledge and Development)		
8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UNESCO-ICSU) Declaration on Science and the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2002	지식 체계의 상존성과 현대 수요를 위한 적합한 통합 촉구
9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	다양한 분야에 전통지식을 통합하고, 빈곤, 보건, 환경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정책 구상을 촉구함. 보건과 지속가능 개발에 있어서, Plan은 “현대 의학과와의 조합을 통해 효과적인 전통 의학 지식과 실행방법을 보존, 개발, 활용하는 것을 증진한다”고 명시함

보건 (Health)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1978, 1995, 2002, 2002 - 005, 2008	보건 시스템에 전통 의학을 통합하고 질, 안정성, 효율성, 접근성에 중점을 둔 국가 구제와 합리적 활용을 촉구함
1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WHO (FAO/WHO)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AO/WHO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BDG)는 전통 식품, 관습, 조리법 등을 고려하고 대상그룹의 수요를 인식하여 문화민감성 활동을 촉구함
12	United Nations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UNSCN)	영양과 건강 유지에 있어서 음식과 관련된 전통 지식의 역할을 명시함.
전통지식, 문화 자원 보호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Cultural Resources)		
1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전통문화 표현, 전통문화, 민속 보호를 위한 독특한 모델 제시
14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2003	전통지식과 관련된 구두 표현, 공연예술, 의식, 지식 등 보호
15	UNESCO Conventio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문화와 개발간 연계 중요성 재확인
생태계와 웰빙 (Ecosystems and Well-being)		
16	Office of the Higher Commission for Human Rights (UNHCHR) 2000	국가는 전통 예방 의학, 치료 행위와 약품을 금지하지 못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보건의 최상위 달성가능표준 확인
17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P-IISD) 2004	웰빙의 10가지 자원 중 하나로서 전통 의학 활용 능력 확인

* 출처: 저자 재작성 / 참고: Unnikrishnan *et al.* (2012).

서구 과학기술 전수는 세계 개도국의 다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개도국 지역(토속)민들과 그들의 지식을 존중함으로써 전통지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근본적인(radical) 대안으로 인식되었다(Briggs, 2013:232). 전통 지식은 빈곤층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고, 생존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식량을 생산

하며,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이 있다고 본다 (Ocholla, 2007).

전통지식의 활용은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다. Oluwatoyin Dare(2009)는 지역사회의 주어진 환경 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전통지식 활용에 있어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인식(awareness)이고, 두 번째는 현상을 하나의 문제로서 자각(perception)이며, 세 번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동기화(motivation)이고, 네 번째는 해결책을 야기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접근법으로부터 나타난 증거(evidence)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시행 및 검증된 접근법의 활용이라는 것이다. Woytek and Gorjestani (1998:8~10)는 전통지식이 지역사회 내에 공유되고는 있지만, 지역 사회간 공유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전통지식을 상호교환(exchange)하는 것은 다음의 6가지 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기술 또는 문제 해결 전략에서 나타난 지식의 인식(recognition)과 확인(identification)이다. 전통지식의 인식은 때에 따라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지식이 기술 또는 문화적 가치와 혼재되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중요성, 관련성, 기능성, 효과성 및 양도성 등의 측면에서 전통지식을 인증한다(validate). 근대기술과 더불어 적정기술의 초기 전수단계에서 확인된바 있듯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 및 도입하는데 있어서 대상 수혜자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및 기술 역량 수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수혜자와 테스트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녹음(recording)과 기록(documenting)이다. 하지만 전통지식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암묵성(tacit nature)으로 인해 이 단계는 쉽지 않다. 네 번째는 검색가능한 보관소에 저장(storage in retrievable repositories)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범주화, 색인화(indexing), 다른 정보와의 연계, 정보 접근성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통지식의 전수(transfer)로서 새로운 환경에 관련 지식을 테스트해야 한다. 특히 수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적·기술적 실행가능성,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다른 기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시범적 운영을 통해 성공적이었던 경우, 전통지식을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보급(dissemination)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지식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지며, 이는 전통지식이 생겨난 지역사회와, 전통

지식을 전수하는 담당자,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전통지식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지역사회 간의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통지식 적용 분야

전통지식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해오고 있다. 전통지식은 지역민들에게 친숙하고, 경제적 및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특정 지역 및 환경 상황에 적합하다. 전통지식에는 취약점이 많지만, 지역민들은 이런 악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Parajuli and Das, 2013:221).

전통지식은 다음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농업이다. 작물 선정, 간작(inter cropping), 정식시기(planting times) 등과 같은 농업 방식에 더해 발효, 보존 등과 같은 농업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농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약용식물을 활용한 전통 의학과 관련된 보건이다. 셋째로 지역사회와 세대간 공유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시켜주는 지역사회 개발이다. 네 번째는 지역의 산물에 기초한 생존 전략을 통한 빈곤 감소이다(Tabuti and Van Damme, 2012: 30-33; Gorjestani, 2004; Ocholla, 2007:238; FAO, 2004; Eyong, 2007: 124-131)(표 2 참조). 이러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볼 때, 전통지식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 지식은 지역사회, 특히 빈곤층을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 전통지식을 통한 학습인 지역 상황의 이해를 높여주며, 지역의 경험, 판단 및 실행에 대한 지식은 사업의 효과성을 넘어서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고, 개발에 있어서 전통적 접근법은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어 지역민과 지방 정부간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게 해준다(Woytek and Gorjestani, 1998:8).

<표 2> 전통지식의 유형 분류 및 특징

관련 분야	지식 영역(area of knowledge)	지식 보유자	지식의 발현형태 (manifestation)	외부인의 지식접근성
농업*	▶ 토양 및 지대 분류 ▶ 경작, 작물 보호 ▶ 식물사회학(plant sociology) ▶ characteristics of crops under stress	모든 농민	▶ 지역 다양성 ▶ 경작 기술 ▶ 작물 보호 기술	좋음
축산 및 수의학*	▶ 사육 ▶ 가축 치료 ▶ 내건성 품종 식물사회학 ▶ 내생 기생충 치료	유목민, 목축업자	▶ 사육 ▶ 수원지 ▶ 가축 경로	어려움
수확 후 기술& 영양	▶ 해충으로부터 보호 ▶ 종자와 농산품 처리 ▶ 음식 준비(조리)	농민 (특히 여성)	▶ 보관체계 ▶ 식료품 ▶ 화장품	대개 좋음
천연자원관리 및 환경보호	▶ 원재료원(source)과 질 ▶ 활용되지 못하는 식물/제품에 대한 식물사회학 ▶ 사방공법(erosion control measures) ▶ 기후와 환경의 장기 주기	농민, 여성, 장인	▶ 임산물 ▶ 등고누렁(contour bund) ▶ 공공재, 이용권, 지역법규 규제 ▶ 원자재 및 제품 제공	양호함
수공업	▶ 목공예 ▶ 주물(foundry) ▶ 직물(weaving)	특수 그룹 또는 개인	▶ 반제품 ▶ 도구 ▶ 예술	좋음
1차 보건의료 (PHC), 예방의학, 정신사회복지	▶ 의료 식물, 가족계획, 생식건강	치료사, 여성, 특수 그룹	▶ 약초, 치료 ▶ 소아 치료 ▶ 대비(preparation) ▶ 사회의 환자(정신적, 신체적) 통합	어려움
저축과 대출	▶ 위험 평가 ▶ 현물 저축(saving in kind)	▶ 저축 그룹 ▶ 대금업자	▶ 단체 담보 ▶ (저축 또는 상환) 조건 ▶ 위험 분담	어려움
지역사회 개발*	▶ 권한 분담 ▶ 네트워킹 ▶ 로비	▶ 연장자 ▶ 지역 지도자	▶ 의식 ▶ 조례(by-laws), 규제 ▶ 변호(advocacy)	다소 어려움
빈곤 감소*	▶ 위험회피 전략, 인근지역 지원	▶ 연장자 ▶ 지역 지도자	▶ 의식 ▶ 의존(dependency) ▶ 지역법규, 소외계층 통합 ▶ 연대감	양호함

* 출처: Woytek and Gorjestani, 1998; Tabuti and Van Damme, 2012; Gorjestani, 2004; Ocholla, 2007; FAO, 2004

전통지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수 공여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challenges)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대한 바에 비해 전통지식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일부 비평가의 실망과 좌절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illitoe(2010)는 전통 지식이 개념적, 실증적 전제에서 벗어나 실제 개발협력의 운영에서 활용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류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Woytek and Gorjestani(1998:13)는 세 가지로 전통지식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전통지식은 성문화되거나 기록되지 못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문화권을 넘어서서 활용되기 힘들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특이한 문화나 지식을 교류한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무관하고, 적합하지 않거나, 때로는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서구' 과학은 전통 문화, 지식 체계와 실행방법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서구 과학 접근법은 이식된 기술의 수단으로서 지역 문화와 지식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셋째로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전수하려는 시도는 토착민의 영향력을 뺏는(dis-empowerment)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슈를 참고할 때, 개발협력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 보유자와 지식 전수의 수혜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화와 참여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지식을 공유하고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재량에 맡겨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정은(미상)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갖추고 있는 개도국이 이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의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김병일(2012) 또한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WIPO의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전수 및 공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전통지식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전수민(2013a)은 현지지식의 개념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Post-2015 논의에까지 현지 지식 및 지식의 현지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페루 전통의약소재 관련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 연구 사업'을 들어 전통지식 활용 가능 분야 중 보건 및 의학에 있어서 현지 지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효과성 확인을 통해 생물자원의 가치 확인 및 상업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가능

성을 명시하였다. 이태주(2013)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ODA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환경건강성' 측면에서 농업기술과 관련하여 전통지식과 생계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농업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생계지속성'과 관련하여 지역 지식과 생계기술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지식의 개요에 더불어 개발협력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슈, 즉 지식과 권력관계,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생물&문화다양성, 상징적&문화적 자본, 인권기반 접근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협력분야에서 전통지식을 도입 및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약사항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더해 전통지식 활용을 위해 노력해온 기관(DFID, CIDA, IFAD)에 대해서 분석하고, KOICA가 기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사항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앞서 살펴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개발협력사업에서 전통지식을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전통지식이 유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전통지식과 개발협력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과 관련된 논의는 World Bank를 시작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앞서 전통지식의 개요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에 더해, 이번 장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전통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아래 이슈들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이슈

1) 지식과 권력관계(The Politics of Knowledge)

권력은 ‘인간이 사회 및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권력의 불평등은 사람, 제도, 국가간에 권력 불균형 관계가 있을 때 늘 존재해왔다. 지식에 있어서 권력 불균형은 지식 구성, 재생산, 보급에서 선진국이 나타내는 우세(domin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배체제에서, 지식은 위계구도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역사적으로 지식 지배(knowledge domination)는 north-south 관계의 총합으로 여겨졌다. 과거 종교 및 인종 신조(doctrine)가 정복과 노예화를 정당화했고, 이후에는 ‘문명화시킨다는 사명’ 아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쓰이기도 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주도 및 기업 지배적 지구화(globalization)를 정당화하고 있다(Girvan, 2007).¹⁰⁾

Kolawole(2009)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창의적이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식 생산과 유의미한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며, 자신의 수요를 확인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런 전략적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주도적인(global) 지식과 전통지식 간에는 분쟁이 있어왔다. 특히 모든 지식 체계는 지식으로 구성되고 설명되는 고유의 인식론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은 박식한

10) 참고 4. 선진국-개도국간 개발지식 위계 참조.

(erudite) 지식(과학적 지식)과 전통 대중지식(공통의 의미 없는 비과학적 지식)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지식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다른 형태의 지식을 항상 억압해왔다는 것이다.

Weiler(2009) 역시 지식과 권력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 지식에 있어서 위계의 중요성이다. 위계는 권력의 본질적인 표현으로서, 주어진 질서하에 높거나 낮은 순위, 지배와 종속, 가치의 크고 작음, 위엄과 영향 등으로 나타난다. 지식 생산의 제도적 정비 영역에서는 학계, 싱크탱크 등의 지식이 위계 피라미드 구조의 상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국가적 수준을 넘어서서 국제적 수준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모든 위계 관계는 지식 세계에서 지위와 권위를 위한 적절한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식과 권력간 상호간 합법화(reciprocal legitimation)이다. 권력은 합법화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지식 또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력과 마찬가지로 지식은 신뢰성(credibility)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과 권력은 상호적 합법화 관계로 연결 되는데, 지식은 권력을 합법화하고, 지식은 권력에 의해 합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식체계와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이다. 국제 지식 체계의 개방성은 지식 생산과 소비에의 접근성에 있어서 극단적인 글로벌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지식체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특이한 분업에 있는데, 핵심적인 지적 과업(intellectual task)은 체계 하에서 불균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회와 기관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대 국제 지식 시스템의 특별한 유형의 위계는 지식에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 하에서 경제적 영향과 정치권력의 국제 위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상업화된(commercialized) 지식의 정치경제이다. 이는 현대 지식생산의 정치 경제가 지식의 상업화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특정 유형의 지식은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 지식 생산은 경제적, 상업적 용어로 간주되거나 취급되게 되었다. 개발 담론에 있어서 개발을 과학기술적 기술과 효율성의 점진적 사회변화(incremental change)로 보는 관점과 사회 과학의 도구적 관점은 개발에서의 중요한 규범적 이슈(normative issue)와 이론들을 무시하게 되었다. 개발 지식을 생산하고 적용하는 것은 세력 격차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지역 내 세력 격차는 지식이 어떻게 인식되고, 누구의 지식이 중요하며, 기반을

둔 정책 효과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개발은 지식의 정치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누구의 지식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개발 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개발에서 제도화 노력(*institutionalized effort at development*)은 특정 종류의 지식이 다른 것보다 높은 지위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고유한 지식 위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상보적 합법화’ 개념은 지식의 정치 이론에서 핵심 요소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과 개발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특정 개발과 관련된 전략은 전략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나타난 지식으로부터 합법성을 얻고, 다양한 연구기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결과물이 정책 과정에 따라 수요에 의해 진행됨을 지적함으로써 신뢰성과 합법성을 지원받게 된다. 지식 위계에 있어서 중심과 주변 기능간 초기 가적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국제 지식 질서는 서구 지식 기관과 전통에 따르게 되며, 국제개발질서 또한 강력한 공여 기관 및 투자 기관이 주도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식의 상업화 역시 개발협력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구에 따라 높은 가격에 개발 지식을 양산해내는 고도로 이윤을 내는 기관들이 양산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지식의 정치학은 개발 개념과 실행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개발은 ‘아래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below*)’과 ‘위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above*)’간의 차이 또는 개발의 더 지역화된, 더 글로벌화된 개념과 기준간의 차이에 역점을 둔다. 그런 점에서 개발에의 지식 정치학은 지역과 지역 전통과 문화에 근거한 개발 지식과 국제사회의 통용되는 유효한 기준이 되는 개발 지식간의 양극화된 긴장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Weiler, 2009). 이와 같은 기준 질서, 즉 과학적이거나 증거기반 지식을 강조해온 소위 주도 공여국의 위로부터의 개발 지식을 토대로 기존 사업이 시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런 지식에 근거하여 수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반향이 생겨나게 되었고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전통지식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ODI의 Harry Jones는 이에 대해 증거에 기반을 둔 강력한 증거(*hard evidence*)가 관료주의를 가져오게 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어, 개도국 국민들을 전통지식에 접근할 수 일반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기대했던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공여국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발 지식에 대한 반향으로, 과거 강력한 증거로 주목받지 못하던 전통지식이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2014년 5월 28일 면담). 또한 맨체스터 대학교의

Admos Chimhowu 박사 역시 지식의 정치학과 관련하여 기존 개발지식 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던 서구 지식은 지역의 지식, 즉 전통지식이 나쁘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왔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과거로부터 얻은 혁신적인 생각을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하였다(2014년 5월 30일 면담). 종합해볼 때, 지식의 정치학을 개발협력에 적용하게 될 때, 기존 주도 공여국/기관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접근법간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할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2) 주인의식

개발협력분야에서 전통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참여 어젠다(participatory agenda)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개발에서 고유한 권리의 주체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통지식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식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발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 등이다. 전통지식은 단순히 보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개발 전문가라고 하는 '외부인(outsider)'은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개발 전문가들은 지역민들이 실제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다. 개발분야에 전통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최근에 나타났으며,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가 '다른' 지식과 관계해온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지식은 빈곤층과 소외된 계층(the marginalised)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참여적 접근법의 목적을 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참여적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권한부여(empowerment)가 지역 수준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 생성될 수 있다. 단순히 지식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지식을 생성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과정은 권한부여와 개발의 현상이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Smith, 2012).

공여국 주도의 지역사회 교육과 변화를 위한 참여 역량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제한을 받아왔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목소리와 선택권을 반영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참여적 접근법의 전제는 그 잠재적 혜택이 발생 비용을 상회한다는 점이지만, 비평

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역설한다. 두 번째는 참여가 주류화 될수록 실용적인 정책 이해관계를 추구하는데 흔히 활용되게 된다. 이는 잠재적 수혜자그룹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용을 전환함에 따라서, 혁신적 사회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비용 효과적 전달 또는 저비용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참여적 경험이 독재적 관료주의 국가의 태도나 실행방식을 바꿀 거란 믿음이 너무 순진하다는 것이다. 참여도가 높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전통 지식은 계획 상황의 구조이고,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근본적 정치학을 숨겨왔다. 네 번째로는, 개도국 지역 정부가 지역 책임에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¹¹⁾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더 책임감 있다거나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하향식(top-down) 접근법의 대규모의 중앙집권화된 정부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공유재를 저해하고 환경과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참여적 개발 운동이 등장함에 따라서 빈곤층이 잘 아는(informed) 참가자로서 활동할 수 있고 외부 행위자는 조정자와 재정 지원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 이니셔티브 중 상당히 성공한 사례들¹²⁾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는 많은 공여국들의 인식이 전환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개발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가 지역사회 역량개발을 이끌고, 스스로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단계에서 지역사회 주도의 개입의 효과성은 지역 역량, 특히 단체행동을 위한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 사회 구조와 통제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ansuri and Rao, 2013).

전통지식은 지역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은 전통지식을 활용하게 될 때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1) 특정 현상에 대한 인식; 2) 현상을 하나의 문제로 자각; 3)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동기부여; 4)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원된 특정 접근법에서 얻은 증거; 5) 시도하여 테스트하는 접근법의 활용의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Kolawole, 2009: 9-10). 이는 외부자가 지역사회에 들어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그에 맞는 진단 및 해결책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11) Mansuri and Rao(2013)는 해당 전제조건으로는 교육받은 자각한 시민, 사회적·경제적 평등, 법치와 질서, 헌법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믿음만한 정보 채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시민사회의 감독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12)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in India, Orangi Slum Improvement Project in Pakistan, Iringa nutrition Project in Tanzania 등이 있다(Mansuri and Rao, 2013:28).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역량개발과 함께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3) 생물다양성 & 문화다양성

지역주민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에 항상 의존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지식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 반대로 생물다양성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생물 자원에 가까이 살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생물자원 시스템과의 사회문화적 관계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존, 특히 현지내 보전(in-situ conservation)¹³⁾에 기여해왔다(Parajuli and Das, 2013).

자연 속에서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 체계는 믿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다. 빈곤은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 체계가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빈곤은 천연 자원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하고, 사람들을 복잡한 전통지식 체계에서 단순하고 쉬운 기술(chemical agriculture)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서구의 ‘근대화된’ 상업 농업 기술은 지역에서 실행하던 방법을 대체 또는 사라지게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단작(쉽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생태계 단순화)을 선호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천연자원의 저하, 영양 부족, 의사소통의 비공식적 채널 손실로 나타나게 되었다(Senanayake, 2006:90).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1960년대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WIPO와 UNESCO가 주도하였으며, 1985년에 ‘Model Provisions for Natio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Expressions of Folklore against Illicit Exploitation and other Prejudicial Actions’를 채택하였다.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 FAO의 주도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주로 소농들의 농업 생물다양성과 특정 내생종자를 보존 및 개발하기 위해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2001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13) 천연자원 서식지 또는 그들의 자연 상태 내에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Parajuli and Das, 2013)

for Food and Agriculture)은 농민들의 권리를 반영하여 발표하였다. 세 번째 물결은 198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CBD(1992) 제 8조에서는 토착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와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기여해온 바를 명시하였다. 또한 UN Indigenous People Draft Declaration(1993)은 전통 이슈가 그들의 토지, 수자원, 동식물상(flora and fauna),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해왔던 다른 자원들과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ILO 196은 토착민의 토지, 생물다양성, 천연 자원, 문화 관습적 관계의 집단적 속성을 존중함을 언급한 바 있다.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한쪽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면,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전통지식이 사라지만, 생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통지식은 세계화,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교육 및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한 다른 그룹으로부터의 배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위협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전통지식을 보존해야 하는 데는 모든 과학적 발견이 해당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만약 잃게 될 경우 다른 지식에도, 또한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라 국가는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도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통지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근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전통지식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에도 노력해야 한다(Parajuli & Das, 2013; Muller, 2013).

전통지식을 문화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 국가의 지역 전통을 면밀히 살펴보면 문화적·생태적 균형이 유지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문화는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생태 환경과 전통 제도로 정의된다. 이는 '파괴적 의존(destructive dependence)'이라기 보다는 '건설적인 의존(constructive dependence)' 상황을 촉진시킨다. 전통지식 생성, 적용 및 활용은 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제·사회·정치 및 지리적 상황 또한 전통지식 생성에 기여하지만, 그 정도가 다소 작다. 게다가 전통지식 체계는 민족 그룹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인다. 다른 문화에서 전통지식 체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는 유사한 것에 대한 다른 지식, 상이한 것에 대한 다른 지식, 지식을 조직하는 다른 방법, 지식을 보존 및 전수하는 다른 방식이다(Senanayake, 2006:89).

4) 지속가능성

모든 개발협력 주체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적 접근법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민중의 의사결정을 위한 근간을 제공한다. 최근에 생태학적 지역, 천연자원, 농업, 수산업, 산림 관리 등에 대한 전통지식은 예전에 추정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이러한 전통지식은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통지식을 반영한 개발 활동이 전통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비해 다양한 중요한 장점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단일재배에서 ‘비과학적인 복작(polyculture)’으로의 전환이다. 전통적 복작은 개도국에 녹색혁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농업 연구진이 무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복작에 관한 연구가 고유의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실행되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서 복작은 그 역사가 2500년을 넘었다. 식습관 다양성, 다양화된 수익 창출원, 생산 안정성, 위험부담 최소화, 낮은 해충 발병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한된 천연자원 강화 및 낮은 기술력 대비 이윤 최대화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민들이 축적된 경험과 생존법을 통해 배운 방식이 현대 개발 계획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는 시사점을 나타낸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 수준에서 개발 과정에 있어서 전통지식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전통지식의 결정적인 강점은 규율의 상호관계성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유의미하게 통합하는데 있다. 이런 전체론적 관점과 결과적 시너지는 개발 효과와 적용성, 지속가능성을 서구 근대 지식보다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계획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적정한 기술이라고 테스트한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Senanayake, 2006:90-92).

지속가능성 개념은 전통적인 생계 시스템에 내재화되어 있다. 전통지식은 한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생계를 지속 또는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전문성, 이해, 통찰력을 포함한다. 전통지식은 다른 유형의 지식처럼 모든 지역에 확산될 수는 없다. 이는 소수 개인들에게 한정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 또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지식이 사라지게 된다. 한 사회 내에서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자연 서식지와 종을 보존하게 된다. 특정지역의 사회문화적 실행은 지

역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토착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ajuli & Das, 2013).

Gupta(2011:61-62)는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세계화로 인한 빠른 개발 활동이 지속가능성 측면에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정치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 지속가능성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태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역민들의 전통지식과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자연 친화적인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유형의 정보는 순수한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없거나 거의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환경과 다른 능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가치 중심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문화적 삶을 통해 생태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전통지식과 지역수준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통지식은 농업과 환경적 관리를 위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다뤄야 할 지식임을 인식해야함을 강조하였다.

5) 사회적 자본 - 상징적,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Pierre Bourdieu, James Coleman, Robert Putnam에 의해 1980-90 년대에 발전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대해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독립체(entity)가 아니라, 공통된 두 가지 요소를 가진 다른 독립체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독립체는 사회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고 구조 내 행위자들의 특정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더해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참가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사회적 삶의 특징인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과 상보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신뢰와 유대감의 기존 토대에 따르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 행위의 가능성 또는 양을 높이는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인지적, 제도적, 그리고 관련 자산의 축적물(accumulation)이다. 그 형태는 구조적인 것, 즉 역할, 규칙, 선례, 절차,

네트워크와 인식론적/규범적인 것인 정신적 과정에 따른 결과, 문화와 이데올로기, 규범, 가치, 태도, 믿음 등으로 협력과 상호 호혜적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은 사회적, 정치적, 영적, 세속적, 공동의 일상 내에 존재하며, 자원으로서 정보 또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지식, 능력 및 기량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통지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연 및 사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전통지식이 '자급자족' 및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강화'를 증진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전통지식 활용을 통한 사회 개발은 역량 개발, 인식, 참여라는 원칙을 유지한다. 전통지식은 지역사회 개인, 가족, 이웃 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해 교역하고 돈을 버는 잠재적인 사회 재원으로서 인식되는 사회적 단위의 일부이다. 사회적 자본과 같이 전통지식 활용은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비용이 낮고,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역 상황에 유연하고 적용가능하다. 전통지식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인기 있는 참여중심적 모델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사회 구조 내에서 형성된 전통지식 및 그 기술은 학습, 정보 교환, 규범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사회적 접착제(glue)'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전통지식은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원, 고객,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Islam, 2012).

사회적 자본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사회 또는 특정 유형에서 신뢰가 보급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자본과는 다르게 사회적 자본은 교육 또는 훈련기관에서 개인을 합리적 투자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또는 획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룹에서 공통된 규범(또는 충성, 솔직함, 신뢰성 등과 같은 덕목)을 얻는 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단독 행동으로 형성되지 않고, 공유된 윤리 가치와 목적을 창조하는 전통, 종교, 역사적 관습과 같은 문화적 메커니즘을 통해 만들어지고 전달된다고 본다(Malecki, 1998).

종합해볼 때, 전통지식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공유의 가치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유대감, 신뢰, 네트워크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식의 정보원(source)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유지 및 통합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전통지식은 향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6)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

인권은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UN 주도의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개발, 인권에 대한 존중과 근본적인 자유가 독립적이며 상호 강화하는(mutually reinforcing)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Human Development Report는 인권과 인간 개발, 그리고 양자간 관계를 다루었는데, ‘개발에서 권리를 촉진’하는 실용적 결과로 다음의 다섯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권에 대해 국가별 독립적 평가에 착수하며, 둘째, 국가법을 국제 인권 기준과 약속에 맞춰 조정하며, 셋째 인권 규범을 촉진하고, 넷째 인권 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섯 번째, 권리를 부여하는(rights-enabling) 경제적 환경¹⁴⁾을 촉진하는 것이다(UNDP, 2000:112). 이에 더해 Uvin(2007:602-604)은 개발에서 인권기반접근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개발에서 인권기반 접근법은 문제의 속성과 개발 행위자의 목표를 재정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요에서 권리로, 자선에서 의무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동시에 책임(accountability)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개발에서 인권기반 접근법은 개발목표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및 충족시켜야만 함을 인식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는 개발협력을 통해 증진되는 변화 과정은 ‘참여적이고, 책임감 있고, 투명해야 하며, 과정의 결과의 의사결정 및 공유에 있어서 형평성(equ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빈곤층과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존엄성(dignity)과 개인의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해야 하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때, 단순히 혜택을 주는 외부자에게 의존하는 것만이 아닌 제도와 절차에 기반을 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DG(2003)는 UN 기관 간 공동의 이해를 위한 개발협력에서의 인권기반 접근법을 언급한 바 있다. 공동 이해 성명을 통해 UN 기관이 실행하는 개발 협력과 개

14) 공공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공공분야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해선 안되는 것에는 다른 분야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야 한다. 둘째, 역할분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사회, 시민권의 직접적 provision에 중점을 둔다. 셋째, 주요 경제 부처는 권리를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민간 분야는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UNDP, 2000:118-19).

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법을 언급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글상자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상자 2> 개발협력의 인권기반 접근법에 대한 공동 이해

1. 개발협력 모든 프로그램, 정책, 기술협력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법률문서의 규정대로 인권을 실현해야만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 법률문서에 명시된 인권 기준과 도출된 원칙에 따라 모든 분야와 모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개발협력과 프로그래밍을 이끈다.
3. 개발협력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duty-bearer'과 권리를 주장하는 'right-holders'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 출처: UNDG(2003)

전통지식은 인권기반 접근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전통지식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 행위자로서 토착민과 현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Twarog and Kapoor(2004)는 전통지식 활용을 규제하는 입법과 추가적 법(supplementary laws) 접근법, 지역주민들의 혁신과 실행 등은 해당 지역사회의 인권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ILO Convention 169(1989),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문(UN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2007), 토착민들의 전통 보호를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1995)과 다른 관련 문서들과 같은 국제 법률 문서가 전통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ILO Conventions¹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토착민과 지역민들의 문화, 삶의 방식, 전통과 관습법 존중
- 토착민이 고유한 정체성, 구조, 전통을 이유로 국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 토착민의 구조와 삶의 방식 보호 필요
- 그들이 속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착민의 권리
- 의사결정에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참가하는 다수 토착민의 권리

15)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No. 169) (ILO, 1989)

앞서 언급된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지역 계획 및 프로그램의 형성,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논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스스로의 관점과 영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는 토착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제공해야만 한다. ILO Convention 169의 제 15조는 “자신들의 토지에 속하는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들로 하여금 해당 자원을 사용, 관리,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천연자원, 나아가 전통지식 전반에 대한 접근 및 혜택 공유를 위한 부분을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법률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는 문제가 되는 법 실행과 혜택 공유를 평등하게 하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국가 기관은 토착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려를 표현하고 풀뿌리(grassroots) 기관과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보존과 자유로운 지식 이전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인센티브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지식 전수는 사전동의한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역량개발과 강화는 지역사회가 사전 동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대, 자원, 전통 지식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법적 지원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Twarog and Kapoor, 2004:332- 333).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전통지식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이 개발협력분야에서 통상 ‘배제되고, 빈곤하며, 소외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권기반 접근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인권기반 접근법이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을 존중하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지식을 보유한 중요한 행위자로서 토착민/지역주민이 그에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개발협력사업에서 전통지식을 적용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

개발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은 다양한 이슈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받고 있다. 개발을 위한 전통 지식이 개발 전문가들과 공여국 및 기관의 중요 부문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판적 접근법 및 제약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관련 연구들이 ‘전통지식’이라는 개념을 근사하게 만드는(romanticise)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통지식 관련

초기 연구는 지식 그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전통지식이 등장한 지역사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별개로 발전하며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겼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관점에 대해 비판하게 되는데, 전통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른 인구 성장, 이주, 재난, 환경 변화 등과 같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식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어떠한 사회도 완전히 분리되어 진화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왔다고 본다. 비평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통지식을 근사하게 만드는 것이 '종족 승리주의(ethnic triumphalism)'¹⁶⁾로 나타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역의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될 때 '외부' 역할은 무시가 된다고 보는 것도 지양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서구 과학'에 근거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배척하는 위험성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통지식이 항상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절하다는 가정은 이러한 지식이 비판적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경우, 전통지식과 그 실행 방법은 제한적이고, 보수적이며, 오해와 편견에 기인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역량이 부족한 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이니셔티브가 실제 자원의 상태를 개선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함을 언급하며, 전통지식은 성공사례의 증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윤리적, 도의적 배경 하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지식이 개발협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해답'이라고 가정하기 보다는, 정부, NGOs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행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장과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알고자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결책이 단지 전통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예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던 정치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과거 연구에서는 전통 지식이 집합적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지역사회는 합의를 이룬 단일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균일한 지식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본다.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분쟁이 있기도 하며, 전통지식의 정치적 특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지식이 사회적 차이에 결부되고,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강조하고

16) '종족 승리주의(ethnic triumphalism)'는 모든 전통지식이 과거에 잘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는 인식을 의미한다(Smith, 2012)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분열과 부족한 지역 리더십, 사회적 결속력 부족은 지역 차원의 천연 자원 사용에 있어서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네 번째로, 초기 전통지식 연구가 전통 지식과 서구 과학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인류학적 전통 또는 역사적으로 '타자'와 조우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초기 연구는 전통지식과 서구 지식은 실질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구분하거나 고정할 수 없는 특정 지식을 시공간에 맞게 구분하여 고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이는 과학의 발전에서 전통지식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학과 비과학간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지역사회가 전통지식과 '외부' 지식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혼합하고 있으며, 하나 또는 다른 범주에 어떤 지식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역에서' 파생된 지식은 지역을 넘어선 다른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외 연구 실행에 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전통지식을 구어 형태로 표현하게 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말로 표현되는 것은 지역민들이 '외부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에 속할 수도 있어서, 구두로 표현되는 것이 알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지식은 대체로 체화된 행위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된 지식이라기 보다 기량(skill)으로 각자 표현하게 하는 구어를 넘어서서 연구자간 협력을 통해 실행되는 만큼 충분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식 역시도 '공공적'이고 '단체적'인 특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지역의 세력 관계와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일부들이 느끼는 주변성(marginality)을 반복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순간', 즉 지식이 연구하는 순간에 표현될 때 시공간상 분리된 때에 중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의 변화라는 장기적 성격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지식 접근성을 넘어서서, 전통지식 관점은 연구자의 위치에 대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반영하는 과정에서 또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통지식을 잘 아는 지역민을 생각할 때, 전문가로서의 전통적인 학계와 연구자의 역할을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지식 생산에 있어서 조력자(facilitator)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할 재배치는 참여적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가 가장 잘 안다는 개념을 부정한다고 하겠다. 전통지식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점차 해당 지식을 '추출(extraction)'하는 것에서 더욱 협력적이며, 반영적인 연구방법 툴킷(toolkit)으로 지향해가고 있으며, 개도국 연구에서 연구에 참

여하는 자로 하여금 중요한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또한 방법론상에서 나타난다고 하겠다(Smith, 2012; Clammer, 2012).

이에 더해 전통지식을 축적 및 체계화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론가들은 전통지식을 국제, 지역, 국가 기록보관과는 별도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현장 외(ex situ) 보존이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장 쉽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간편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전통지식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선 전통지식이 본질적으로 분산되고, 특성상 지역적이며 인간의 삶에 깊게 연루된 것으로 본다면, 이런 지식을 분리하고 정리하며 전수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본다. 또한 전통지식의 역동적인 특성과 인간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해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현장 외 보존 방법은 전통지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Agrawal, 1995). 전통지식을 과학 지식의 기준으로 보존 및 저장하려는 시도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초기 시도가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Briggs(2013)는 전통지식과 관련한 최근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 그 중 하나로 전통지식이 지역 특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가능한 폭넓고 다양하게 전통지식을 활용한 선행사례를 정리하여 수집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온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개발협력 담당자에게는 활용에 있어서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담당자들과 원조 기관은 궁극적인 개발협력 목표인 빈곤감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개입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전통지식을 활용한 방법이 적합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을 도입 및 활용한 개발협력사업에서 개발협력 담당자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scale up)'할 수 있을 것인지, 특정 지역에서 도출된 개념, 사고, 결과 등을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문제점은 전통지식이 향후 개발협력사업에 활용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는 점임을 언급하였다(Briggs, 2013: 232-233).

Harry Jones는 전통지식의 논의와 중요성이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는 전통지식이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에 고려하기 어렵고, 일부 정부기관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관료주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전통지식이 갖

는 성문화되지 않고 비형식적인 특성으로 인해 활용이 어렵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2014년 5월 28일 면담).

개발협력에 있어서 전통지식이 중요하며, 활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통지식 자체적인 특성과 시행자 및 주체자의 접근법 등으로 인해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협력사업에 전통지식을 도입하게 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에 정리하도록 한다.

3. 개선방안

Kolawole(2009)는 전통지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언급하였다. 첫째, 정책 결정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통 지식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 과정(형성 및 실행 등)의 프레임워크에 전통지식과 서구(western) 지식을 동등하게 두고 고려해야만 한다. 둘째, 국가 정부,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전통 지식 체계의 인식과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때 정규 교육과정에 전통지식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을 정규 교육 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그 역할을 형성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개발협력 기관은 직접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유용한 통찰력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업무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로써 지역 학자와 장인들은 지역사회 단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서 개발 정보 체계 구축에 정보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전통지식 보유자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을 인식하는 유의미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riggs(2013:238-240)는 개발협력담당자들이 사업에 전통지식을 활용 및 확대하는데서 확인한 제약사항과 관련하여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지역 특수적 특성이 제약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내재된 전통지식은 개발 사업 실행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개입방식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담당자와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단위에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과학적 기술의 이해를 보완하여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공여기관과 개발협력 담당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빈곤감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개도국의 지역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참여(engagement)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으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보다는 ‘~와의 학습(learning with)’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에 참여에 대한 사고의 발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여기관과 담당자가 개발 사업을 실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장기적 이해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지식은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개발 실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일 때 전통지식이 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더해 Harry Jones는 개발협력사업의 계획,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사업, 유닛, 조직 각 수준에서 단계별로 전통지식을 연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여기관의 참을성 부족(patience)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하여 실제 사업에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분석 및 반영하기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2014년 5월 28일 면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여기관의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고려 여부가 사업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지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전 단계를 운영하는 노력이 더해질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전통지식의 지역개발사업에의 적용 방안

1998년 World Bank는 개발에서의 지식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에서 ‘재정, 기술, 의학 지식 접근성이 빈곤층의 보건과 삶의 수준 개선에 결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계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환경에 관한 지식은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확인되고(captured), 공유하며, 의사소통되지 않고 있다. 개발을 위한 지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행위자는 농촌 또는 도시 지역에 근거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그룹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 토착민(indigenous people), 촌락 협회(village associations), 지역 NGO, 소규모 기업(micro-enterprises), 사회 및 환경 기업가(social and environmental entrepreneurs), 청년 및 여성 그룹, 협동조합(cooperatives), 자조(self-help) 그룹, 저축(savings) 그룹, 지방정부당국 및 지방자치당국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지식을 적용하여 즉각적 또는 장기적 제약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Heather, 2012:2).

지역개발사업에서 전통지식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하게 된 것은, 탈 패권화(dehegemonization)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개발에 대해 생각하고 설명하기 시작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Grego, 1998: 309-310). 이는 개발을 위한 지식이 강조되면서 선진국에서 구축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개도국에 전달하려는 기존 ‘주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상향식(bottom-up), 참여적 접근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의사소통 및 해당 사업 참여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그에 따라 거시적(macro) 수준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사회에서 지역 단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지식공유를 강조하게 되었다(Talyarkhan *et al.*, 2004:7).

Langill(1999) 역시 전통지식을 사업에 활용하게 되는 것은 자급자족을 증진시키고,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권한 강화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과 관리 계획에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자원 및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지역

주민과 외부의 서구 과학자들에게 적합성 및 신뢰성을 가져다준다. 지역의 역량개발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연구자 및 개발사업 담당자들은 적절한 전통지식과 제도를 지원 및 강화해나갈 접근법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역 환경과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

이에 더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지역주도적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발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국가별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통지식과 해당 노력, 이니셔티브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통지식은 문화적 전통·가치·사회적 과정에 내재된 바를 포함하며, 개발 자원으로서 지역단위의 지식, 즉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개도국의 소농 기반 사회운동과 농촌 및 지역사회 개발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Girvan, 2007).

다양한 원조기관들이 국제사회의 토착민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자연, 문화, 영적 세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는 현상을 인식하고 각 기관 프로젝트에 전통지식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은 물론 기존에 전통지식을 반영하지 못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조기관들이 개발협력사업, 특히 지역개발사업에서 전통지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주의적 수요(인간의 기본적 수요) 충족으로 볼 수 있다. 빈곤감소, 거버넌스, 인권, 환경 지속가능성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기본 수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해온 내생적인 전통지식을 활용하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지식과 보유자인 지역민들에 대한 존중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사업의 시행 및 운영, 관리 등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개발 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

원들의 전통지식이나 문화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업의 기획이나 실행 단계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체계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사업 내에 지역사회의 개입과 전통지식 반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가 실패에 이른 경우가 많다고 본다. Waters-Bayer and Bayer(1994)는 이를 유럽과 아프리카간 목축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역사에서 찾고 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목축업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담당자(기획자)의 목축업 목표, 생태계, 목축 시스템의 기능, 환경과 관련한 생산성, 광범위한 축산업의 경제학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고 있다. James Scott은 그의 책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1998)에서 근대 과학 지식이라고 불리는 개발협력 실행자들의 지식체계와 전통 지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는 예측불가능성의 측면에서 실용적 지식, 비형식적 과정, 즉흥(improvisation)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학적 산림과 마을지역민들이 가지고 전수해온 산림 생태학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양봉, 전통 농업, 망고 나무 재배 등을 볼 수 있다. 산림과 관련하여 과학적 산림법의 경우, 독일에서 동남아시아로 방식을 전수했지만 생태적으로 파괴가 일어났다고 보았다. 여기서 Scott은 근대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근대주의가 인간에게 재난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전통 지식에 유의하고 사회나 자연을 변화하는데 있어서 실험을 전체화하는데 주의하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Scott과 Waters-Bayer and Bayer는 전통지식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해온 경험에 근거할 때 전통지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지식은 사업실행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작은 요소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공여 기관들은 여전히 전통지식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DFID 및 CIDA, IFAD의 사례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각 기관의 반영 노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영국국제개발부(DFID)의 전통지식 반영 개선 노력

대표적으로 영국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DFID의 독립적 감시단체(watchdog)인 원조효과 독립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이하 ICAI)¹⁷⁾는 2014년 4월 'How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earns'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효과성과 value for money이라는 ICAI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당 보고서 중 전통지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지 인력 활용에 대해서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DFID는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사업운영을 통한 학습이 우선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그 중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전통 지식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으며 DFID를 포함한 다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황에 적합한 접근법을 구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 및 업데이트 하여서, 궁극적으로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수원국 국가에서 임명한 스탭프(staff appointed in country, SAIC)의 경우 특정 전통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수원국의 현지 사무소에 배치된 영국인 스탭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무소장은 모든 스탭프가 지식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 현지 스탭프의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은 사무소장에 의한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지식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스탭프가 현지 사무소의 지식과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성공적인 사례로 인도 오디샤(Odisha)¹⁸⁾에서 시행한 사업은 해당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 관리 및 잠재적 수혜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규모 생계개선 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언급한다. 모든 스탭프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고용된 현지 스탭프는 '질문을 받을 때만 의견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든 스탭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권고하였다(ICAI, 2014)¹⁹⁾.

17) ICAI는 영국 개발원조의 정밀조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서, 영국 원조가 가장 효과있는 것(what works best)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적 증거 활용을 옹호한다. 의도한 수혜자를 위한 원조 예산 집행과 영국 납세자를 위한 value for money 전달체계의 효과성 극대화에 중점을 둔다. ICAI는 영국 원조효과성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보고서를 출간한다. 이로써 ICAI는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증거기반 피드백을 제공하여 제안된 내용이 변화를 주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증거기반 정책과 결과 어젠다는 이 기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전수민, 2013b:27)

18) 2011년 Orissa 정부는 Orissa주를 Odisha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일부 보고서에서는 'Orissa'로 표현하기도 하고, 'Odisha'도 함께 사용된다.

<글상자 3> DFID 인도 서부 오리사 생계개선 프로젝트
(DFID Western Orissa Livelihoods Project(WORLP) in India)

*** 인도와 오디샤 주 현황**

- 세계 빈곤층 인구의 1/3이 인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도 28개 주와 7개 연합 영토 중 오디샤는 4200만 인구로 구성된 지역이다. 인도에서도 유아 사망률, 산모사망률 등이 높으며 빈곤 인구가 많다
- 오디샤 인구 8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주의 도시보다 빈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빈곤층이 오디샤 서부와 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대개 농업과 산림 관련 제품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도 서부 농촌 생계 개선 프로젝트**

· 개요

- 지원 기간: 2001-2011
- 지원 예산: £32.75 million
- 예상 목표: 2011년까지 반복가능한(replicable) 방식으로 해당 지역 네 개 지구*의 (특히 최빈곤 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계 촉진

* 네 개 지구: Bargarh, Bolangir, Nuapada, Kalahandi

- 현지 담당 기관: WORLP를 위해 특별 구성된 오디샤 분수령 개발 미션 정부
(Government of Odisha's Watershed Development Mission, OWDM)
- 담당 인력: 영국 회사가 고용한 인도 및 국제 컨설턴트(기술 지원),
지방 정부기관 및 NGO(수혜자 그룹과의 협력)
- 구성요소:
 - 1) 토지 및 수자원 관리 - 둑, 수자원 저장 연못 및 관개 수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개선 목표
 - 2) 빈곤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소규모 기업을 위한 대출/차관 및 소액대출 제공, 합작 기업을 위한 공동 대지 접근성 확보
- **성과** :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향상, 소규모 기업 설립에 지원된 대출/차관을 통한 소득 증대,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자산의 지역사회로의 환원, 오디샤 정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 가짐

· 권고사항

- 1) DFID가 장기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생계 및 기타 기후 적응성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함.
- 2) 출구 전략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설계가 필요함. DFID는 사업의 완전 종료까지 생계개선 프로젝트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3) 프로젝트는 수혜자에게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했음. DFID는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성공 요소

- DFID가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지원해왔음. 지방 정부와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이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실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며, 신뢰가 더욱 구축

19) 해당 보고서의 1.10, 1.16, 1.21, 1.32, 2.19, 2.60, 2.62, 2.100 참고할 것(ICAI, 2014)

됨

- 프로젝트 설계에서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함.
- WORLP는 인도와 지역 상황에 대한 초기 농업 관리 프로젝트를 통한 시사점과 정치, 사회, 경제 분석에 기반을 두어 시행됨
- 수혜자 그룹이 프로젝트 실행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
- 지역 참여와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 재정 투명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DFID가 부패 민감성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음
- 10년으로 구성된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 하여금 안정된 지원을 보장해주고 단계 시행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지역사회 내 내부 학습이 가능해졌음.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성과 계속성이 유지됨

• **전통지식 관련**

- **정확한 지역 분석에 근거한 사업 설계**

: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DFID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했음.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정치, 사회, 환경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시행했음. 특히 지역사회 기반 학습이 잠재적 수혜자그룹을 개입시켰으며, DFID는 그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음.

- **DFID는 최근 은퇴한 인도 정부 관료를 프로젝트 설계를 지원하도록 고용**

: 관료들의 지식과 네트워크 지위 등을 십분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함. 무엇보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프로젝트가 지역 상황에 최적화되고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였음.

* 출처: ICAI, 2013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ICAI가 DFID 사업 전반에서 지적인 내용을 참고할 때 DFID는 전통지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지식을 사업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 실행을 통해 확인된 또는 현지 스태프가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 하여 DFID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게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전통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지 채용 스태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당 지역 상황 분석과 수혜자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성공적 사업 실행 결과는 전통지식을 도입한 개발협력사업,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참여자로 반드시 지역사회 주민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분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DFID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본 전통지식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의 제약사항 및 권고사항을 참고할 때 향후 지역개발사업에서 원조기관들이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글상자 4> DFID 전통지식 활용 지역개발사업 사례

* Sustainable Local Water Management Strategies in Bangladesh—Meeting Needs and Resolving Conflicts(1996.10.1~1999.12.31 / UK Pound 27,000)

• 목적

- 수자원 배분, 배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하고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개발 및 촉진하기 위함
- 다수의 생계 활동이 수자원과 연계되어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수자원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에 영향을 끼침

• 배경

- 방글라데시 홍수범람원(floodplains)에서 살고 있는 농촌인구의 생계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영역간 연계되어있음. 수자원기반관리는 농업 생산성, 보건, 농지 외 소득 창출기회, 물리적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지역 생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임
-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해당 지역 생계의 취약성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대한 이해는 생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수립 개발을 가능하게 함

• Resources

- 지역 수자원 관리 실행 분석을 시행하고 **기존 수자원 기반 GIS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함**
- 기존 시스템의 지역간 분쟁을 포함한 제약사항과 개선된 수자원 관리 전략을 포함한 잠재성을 확인하고 참여 과정(participatory process)을 통한 지역 사회경제적 및 환경 상황과 연계하게 됨
- 핵심 수자원관리 전략은 방글라데시 다른 지역 전략과 비교되었음
- 보급을 위한 옵션에서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확인되었고 이해관계자(지역 행위자, NGOs, 정부 기관) 등에 의해 입증되었음
- 전략과 선택사항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개발됨
-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의 정책/전략에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실제 국가 정책,전략 과정에 반영되었음.

• 결과

- 다양한 생계 활동이 수자원과 연계되는지 상세하게 정리함
- 연구의 참여적 성격은 직접 수혜자가 결과를 촉진하는데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다양한 단계에서의 프로젝트와 지역 기관간 강력한 연계는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 수자원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
- 해당 보고서는 다음 NRSP cross cutting 연구인 '생계 종합 연구: 빈곤층의 생계 전략의 핵심 결정요인과 천연자원 관련 관리 기회'에 활용됨

• 지역 참여 측면

-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 프로젝트(Systems Rehabilitation Project, SRP)와 Compartmentalisation Pilot Project, CPP)는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내켜하지 않음(unwillingness) 또는 무능(inability)을 확인하지 못함.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정보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앙화된 기존 프로젝트는 유동적이고 지역 특수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전통과 맞지 않았음
- **방글라데시에서는 오랫동안 잘 발전된 수자원관리 전통이 있었음**
- 홍수를 통해 가정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둑과 도로를 높이고자 공동 행동을 보였음(공공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임)
- 관련 이니셔티브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시행됨
- 이는 외부에서 지원받는 개발사업보다 더욱 적정하고 가격이 싼 것으로 확인됨
-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과 프로젝트는 절차가 참여적이어야만 함

- 조직 내에서 필요한 변화는 하향식의 연계된 대상목표와 감독을 통해 강요하는 것에서 **상향식 방식의 수요 확인 및 지역 운영과 관리**로 전환되어야 함
- 우기에는 물이 표면 위를 넘치지 않고, 건기에는 표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지하수 공급이 유지되길 바람

* 출처: Chadwick *et al.*(미상)

Neiland *et al.*(1995)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적 연구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연구자들과 사업 담당자들이 개발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소라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체계 및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자와 사업 담당자들에게 공유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연구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 발견과 함께 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한 지역개발사업 사례 및 DFID 사업에 대한 ICAI 보고서를 살펴볼 때 DFID는 전통지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지역개발사업 보다는 사업의 실행을 더욱 효과적이고 개선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참여 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과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캐나다 국제개발처(CIDA)의 전통지식 반영 노력

캐나다 국제개발처(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CIDA)는 전통지식에 대해 World Bank와 함께 전통지식을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동 제목의 보고서 발간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Emery (2000)는 해당 보고서에서 기존 과학 및 기술을 활용한 기술에 더해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통지식은 오래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경험에서 도출된 복잡한 지식 체계로 보았다. 그에 따라 프로젝트를 설계 및 실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전통지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지역에 토착민(지역주민)을 확인하라
- 토착민(지역주민)의 자원과 지식 보호를 위한 전통적 권리를 존중하라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계획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하라
- 전통지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기에 앞서 전통지식의 특성을 이해하라

- 전통지식의 강점에 기반을 두라
- 프로젝트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통지식과 해당 지식을 보유한 주민을 개입시키라
- 신뢰, 존중, 형평성, 역량개발이라는 기준하에 전통지식을 받아들이라

이에 더해 CIDA는 프로젝트 기획과 전통지식에 대한 안내서(handbook)를 발간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Emery(2000)의 가이드라인이 더욱 구체화 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안내서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전통지식 시스템을 연계시켜 프로젝트의 효과를 예측하고 대상 지역주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업을 실행하게 될 때 지역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실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게 될 현장 실무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전통관습과 지식은 지역과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한 가지 접근법 또는 방법이 모든 토착민(지역주민)에게 적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대 결과를 정하고, 적합한 수행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호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토착민(현지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CIDA, 미상).

3)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전통지식 반영 노력

전통지식을 활용한 사업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이하 IFAD) 역시 기존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학습한 시사점과 선행 사례를 정리한 바 있다. 우선 문화적 특수성에 있어서 토착민(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당 주민들의 자산이자 경제적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가치화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중심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참여중심 접근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와 지역 주민의 목표와 비전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또한 생계 및 기회 제공을 통한 소득 증대의 측면에서, 토착민(지역주민)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취약성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계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중요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그들의 전통지식에 반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기술 또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농작물 다양화, 생산성 강화 기술 연구 및 채택, 소액금융, 천연자원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개발 등을 포함한다. 전통지식과 현대기술의 혼합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강화하며, 해당 지역에 적합한 근대기술을 혼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을 재생하며, 식량안보와 보건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약용식물에 대한 전통 지식은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행해온 바가 있으므로, 참여하는 파트너간 공정한 국가/국제적 가치 사슬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IFAD, 2009).

<글상자 5> IFAD의 전통지식 추진 및 혁신 사례

* 사업 개요

- 사업명: 코딜레라 산악지대 농업자원 관리 프로젝트(Cordillera Highland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CHARM) Project)
- 사업기간: 1997년 6월~2003년 3월(완료시점)
- 공동 재정지원 기관: 아시아개발은행(ADB)
- 목표: 해당 지역에 소규모 자작농가의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코딜레라 행정 지역내 빈곤 감소
- 세부목표:
 - 농업자원관리 활용 효율성 개선
 - 지속가능성있는 개발 실행 촉진
 - 바위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이점을 확대
 - 역량 강화 및 내부 수익 생성 확대

* 사업 기획

- CHARM 기획 과정에 수혜자그룹을 참여시켰음
 - CHARM 기획 문서에 전통지식 활용 및 촉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참여적 계획 과정을 볼 때 전통지식이 CHARM의 전략과 목표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활용됨을 볼 수 있음

* 모니터링

- CHARM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실행하는 다양한 주제에 따른 팀으로 구성된 바기오 시 프로젝트 지원 사무국(Project Support Office, PSO)을 설립하였으며, 사업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임
- 지역 산림관리 시스템을 채택 및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지식과 혁신이 사업 수행과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

* 프로젝트 관리

-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실행과 지식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화 형성
 - 다양한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와도 의사소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전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됨
- 프로젝트는 당초 지역사회 동원 및 참여에 기반을 둔 전통지식 촉진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뒀기 때문에 작은 지역 행정단위에서부터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을 기획했음.
 - 해당 과정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을 제공하도록 지역사회의 개입을 유도함
 - 전통 신앙과 실행에 근거한 산림 관리 방법은 관행조림(Reforestration) 요소에 통합

* 기술

- 농업 및 산림체계에 대한 지역 관리 방법이 중요 단계에 촉진 및 보급되었음(예, 농림업에서 혼합종 활용은 집중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일부가 사라졌다가 다시 전통지식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책 환경**

- 해당 프로젝트는 전통지식과 혁신을 활용 및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음
- 정부기관은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젝트 개발과정에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했음 (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현실임)

*** 전통지식 의의**

-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에서 전통지식을 활용 및 촉진해온 것은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갖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음
-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농민 현장 학교,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마련하는 학습과 공유 플랫폼 구성이 전통지식이 촉진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
- 하나의 테스트의 장으로서 지역사회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통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실행해볼 수 있었으며, 정부 관료와 NGO에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경험하게 된 계기였음

* 출처: IFAD, 2004

4) 한국 원조기관의 기존 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전통지식 활용 분석

한국의 원조기관들은 기존 사업 실행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적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원조 기관이 그러하듯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해서 예산, 시간, 인력 등이 많이 드는 이유로 전통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간과하거나 편의상 간단한 국가 및 지역 현황 조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한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 해당 지역 및 전통지식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구성되는 인력은 대개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기 힘들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해당 지역의 전통지식과 관습을 정확히 알기는 무리다. 그에 따라 기존 현지의 전통지식과 관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일부 원조 기관의 경우에도, 관리하는 사업의 수와 업무 과중으로 개별사업에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사업 운영과 실행에 있어서 수행업체나 전문가들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실행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고위급 관리와 논의하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관리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거나,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한국 원조기관들이 기존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앞서 살펴본 한계점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5)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앞서 살펴본 DFID, CIDA, IFAD의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과 사업 기획과 실행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향후 한국 원조기관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하는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착수 이전 사업대상지의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업대상지에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지역사무소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한 전통지식과 정보를 모아 목록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FID에서도 기존 사업 경험을 통한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노하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 원조기관들은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조사 단계에서 전통지식을 분석하고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특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사전조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해외사무소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통역 및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숙지하고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축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현지의 가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통지식과 기존 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도입하여 기존의 것과 잘 융합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의 선진 기술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현지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현지의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 거부감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현지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지전문가는 현지인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전통지식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수행을 도와주는 조력자(facilitator)²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사업 전반에서

20) 전통지식 확인 및 효과 테스트 및 프로젝트 적용에 있어서 facilitator를 강조하고 있는데, 담당 역할을 informing,

원조기관과 지역사회간 의사소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현지전문가의 자질이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온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적절한 인력을 추천받거나, 역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사업 수행에 있어 담당 지역 조직과 기관을 구성할 때 지역주민을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지역개발사업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정부기관 관료 및 지방 관료들과의 협의는 공식적인 절차이지만,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들이 가진 전통지식에 배치되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추게 되면 사업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ODI의 Harry Jones는 사업의 사전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그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실제로 ODI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연결(matching)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언급하였다.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의 계속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해온 바를 개선하여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더욱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반영하고, 진행해온 경과 및 작용한 전통지식을 인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2014년 5월 28일 면담). CIDA는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전통지식은 단기간에 외부인들이 알아낼 수는 없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토착민(지역주민)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개입시켜야 하며 해당 지식의 해석 및 프로젝트 운영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지식을 초기부터 사업에 연계하여 과학적 또는 서구적 접근법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CIDA, 미상).

linking, match-making, engaging, collaborating, building adaptive capacity 등으로 보고 있다. 능력있는 인력의 자질로서는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분야 전문성, 정책을 이해하는 식견,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업무효율을 위해 시민사회(기관) 과 컨설팅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음(ODI Harry Jones, 2014년 5월 28일 면담)

구성하는 지역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지만 사업실행에서 필요한 공여기관 담당자와 수원국 정부기관 담당자, 해당지역 담당자 및 지역사회 대표와 실무진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회의나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공여기관과 협력할 수도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자는 더욱 늘어난다고 하겠다.

다섯 번째, 사업 평가시 작성하는 평가목록과 관련하여 현지지식 부분을 추가하여 투입한 기술이 현지의 전통지식에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재 수준보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등장 배경 및 적용가능 분야를 분석하였다. 전통지식은 현지에 기원을 두고 오랫동안 발전해온 지식과 함께 외부의 지식이 도입되어 현지화된 지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세대를 거쳐 지역사회에 속하고 실행되어온 지식이자 기술, 태도의 총합으로서의 역동적 archive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지식은 개발협력 담론에서 나타난 기존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대안적 개발접근법의 등장에 따라 상향식 접근법으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본다.

1970년대 중반 기존 서구 중심의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 확산에 따라, ‘대안적’ 이론과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중 하나로 ‘참여적 접근법(개발)’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역민들의 지식이 개발협력에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전통지식이 개발협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개발협력 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 또는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한 방법으로 전통지식 도입 및 활용을 모색하고자 했던 World Bank와 UNESCO는 개발을 위한 전통지식과 우수 사례를 정리하는 등 전통지식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국제법상에서 토착민과 지역주민들의 국제 인권과 인식에 대해 강조하게 되면서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전통지식의 논의와 중요성 인식이 최근 들어서는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전통지식이 지역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조 기관과 사업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나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사업에서 전통지식을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특정 지역에서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원조기관의 경우 전통지식의 비형식적이며 성문화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워하고, 사업 실행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 안목으로 분석, 기획, 운영해야 하는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통지식은 농업, 보건, 지역사회 개발, 빈곤감소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통지식은 지역사회, 특히 빈곤층을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 효과성을 넘어 개발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지역민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운영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개발협력분야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전통지식은 지식과 권력관계, 생물 및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및 사회적 자본, 인권기반 접근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통지식은 권력의 위계구조 내에서 지식에 있어서도 서구 근대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발을 위한 지식에 있어서 과거 정치적 관점에서 보듯 위계를 구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도적 지식보다 전통지식이 대안적 관점으로 등장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주인의식의 경우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참여적 접근법의 핵심적 요소로서 단순히 외부인이 주도하는 사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업을 실제 이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은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고 천연자원을 활용 및 보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의 일부로서 전통지식을 보게 될 때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이란 측면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 전통지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이 가지는 전통지식이 문화와 생물다양성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전통지식은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사회적 신뢰이자 유대감의 토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회를 유지 및 통합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인권기반 접근법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은 지식을 가진 지역주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참여의 기회를 가져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적용 및 활용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첫째, 전통지식이라는 개념을 너무 근사하게만 보는 경향에 있다는 점이다. 전통지식을 외부와는 별개로 발전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지만, 세계화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전통지식이 항상 지역개발에 있어서 적정하다는 가정을 내리는데 있다. 모든 전통지식이 지역개발에서 성공요소로 작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행위자가 실행하는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전통지식의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은 반드시 집합적이거나 균일한 형태를 이루지 않는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권력과 관련될 경우 오히려 개발협력사업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전통지식과 서구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활용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초기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행된 전통지식의 축적 및 체계화 노력에 있어서도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전통지식이 인간의 삶에 연계되고 지역 특수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기록하고 저장하려는 방식이 맞지가 않다고 보았으며 전통지식의 역동성과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 이런 보존 방식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지역특수성은 다른 지역으로의 효과적 확대라는 ‘보편성’의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담당자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제약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개발협력사업 모든 단계에서 전통지식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고, 개도국의 경우 전통지식 체계 인식과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개발협력기관은 지역사회의 통찰력과 전통지식을 확인하여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앞서 보편성의 측면에서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한 전통지식은 오히려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동등한 파트너십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기회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지식을 활용하려는 다수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역주도적, 참여중심적 접근법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수성을 인식하며, 전통지식 및 관련 이니셔티브가 개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DFID의 경우 전통지식이 사업실행에 있어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통지식의 유지 및 업데이트를 통해 기관의 노하우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지 사무소에 채용된 현지 스태프가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단계에서 잘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확인한 바 있다. CIDA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사례를 볼 수 있다기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핸드북 발간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의 전통지식을 통합시키는 방안과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IFAD는 기존 선행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여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기술과 방법 모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에 적용된 실제사례에서도 전통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볼 때, 한국의 원조기관들은 향후 지역개발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통지식을 어떻게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대상지의 전통지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전조사단계에서 전통지식을 분석 및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 단계에서 현지에 대해 잘 알고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현지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업 평가시 작성하는 평가목록 중 현지지식 부분을 추가하여 투입한 기술이 전통지식 측면에서 잘 부합하는지, 개선된 정도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지식은 해당 지역에 투입된 시기와 상황에 따라 투입요소나 기술이 유사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지역에서 실행한 전통지식을 도입한 지역개발사업 사례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 또는 타국가의 다른 지역에 즉각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지식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식을 존중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전통지식은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투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 설계

에서부터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사업 전반에 전통지식을 연계하고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발협력분야와 연계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기존 원조기관의 노력을 분석하여 한국 원조기관이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해당 시사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사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이태주. (2013).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44차 ODA 토크 새마을운동 ODA, 누구를 위하여 새벽종은 울리나?. ODA WATCH. 2013년 10월 25일.
- 강석훈, & 이지은. (2012).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식재산권 연계 방안. 문화정책논총, 26(2), 80-105.
- 신정은. (미상).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WIPO 정부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21, 6-15.
- 김병일. (2012). 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6(1), 93-128.
- 전수민. (2013a).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KOICA 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 전수민. (2013b).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KOICA 연구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외문헌

- Agrawal, A. (1995). Indigenous and Scientific Knowledge: Some Critical Comments. Indigenous Knowledge and Development Monitor, 3 (3)
- Ajibade, L. T. (2003). Knowing the unknown through the known: The case of Indigenous Knowl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Proc Engabu Za Tooro (Tooro Youth Platform for Action) Conference (pp. 4-9).
- Assembly, U. G. (2007).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 Washington, 12.
- Boven, K., & Morohashi, J. (2002). Best practices using indigenous knowledge. The Hague: Nuffic.
- Briggs, J. (2005). The use of indigenous knowledge in development: problems and challenges.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5(2), 99-114.
- Briggs, J. (2013). Indigenous knowledge : A false dawn for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13(3), 231-243
- Briggs, J., & Sharp, J. (2004). Indigenous knowledges and development: a postcolonial caution. Third World Quarterly, 25(4), 661-676.

- Brosius, J. P. (2006). What counts as local knowledge in global environmental assessments and conventions. Bridging scales and knowledge systems: concepts and applications in ecosystem assessment, 129–144.
- Chadwick, M., Soussan, J., Mallick, D. and Alma, S. (미상), Understanding Indigenous Knowledge: Its Role and Potential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Bangladesh, share4dev웹사이트
(http://www.share4dev.info/kb/project_view.asp?projectID=72)
- Chiarolla, C. & Lapeyre, R. (2013).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How can they be protected? Policy Brief. No. 13/13 November 2013. IDDRI.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sed in Paris on June 7, 2013.
- CIDA. (미상) Handbook of CIDA Project Planning and Indigenous Traditional Knowledge. <http://www.kivu.com/pdf-test>
- Clammer, J. R. (2012). *Culture, development and social theory: Towards an integrated social development*. Zed.
- Creech, H. (2012). Knowledge Platforms and local level knowledge sharing. A Participant Reflection Paper for the 2012 IDRC Canadian Learning Forum.
- Croal, P., Tetreault, C., and members of the IAIA IP Section. (2012). Respecting Indigenous Peoples and Traditional Knowledge. Special Publication Series No. 9. Fargo, US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 Ellen, R. and H. Harris (1996). Concepts of Indigenous Environmental Knowledge in Scientific and Development Studies Literature – A Critical Assessment. Draft Paper Presented at East–West Environmental Linkages Network workshop 3, Canterbury
- Emde, G. (2011). Access and Benefit Sharing: Protecting Rights to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 Emery, A. R. (2000). Guidelines: integrating indigenous knowledge in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orld Bank.
- Eyong, C. T. (2007). Indigenous knowl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frica: case study on Central Africa.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levance for Africa. Kamla–Raj Enterprises, Delhi, India, 121–139.
- Girvan, N. (2007). Power imbalances and development knowledge. North–South Institute.

- Gordon, L. (2004). *Fragile memories: indigenous knowledge and development*, working paper, Ma Anthropology of Develop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University of Sussex, UK.
- Gorjestani, N. (2004). *Indigenous knowledge for development. Protect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National Experiences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265.
- Gupta, A. D. (2013). Does Indigenous Knowledge have anything to deal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Cultural Anthropology*, 57, 64.
- Hagar, C. (2003). *Sharing indigenous knowledge: To share or not to share? That is the questio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Equaliz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FAD. 2009. *Engagement with Indigenous Peoples*. Policy _____ (2004). *Promotion of Local Knowledge and Innova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matic Evaluation*. Report No. 1746. July 2004
-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ICAI). (2009). *How DFID Learns*. Report 34. April 2014.
- _____. (2013). *DFID's Livelihoods Work in Western Odisha*. Report 18. February 2013.
- Islam, M. R. (2013). Indigenous knowledge as social capita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10, 65–79.
- Kothari, A. (2007). *Traditional knowl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nitoba,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 Lanzano, C. What kind of knowledge is 'indigenous knowledge'? Critical insights from a case study in Burkina Faso.
- Malecki, E. J. (1998, April). How development occurs: Local knowledge,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embeddedness. In *Meeting of the Souther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Savannah.
- Mansuri, Ghazala, and Vijayendra Rao. 2013. *Localizing Development: Does Participation Work?* Washington, DC: World Bank.
- Mkapa, B. (2004). *Indigenous Knowledge—A Local Pathway to Global Development*. *Indigenous Knowledge Local Pathways to Global Development: Marking Five Years of the World Bank Indigenous Knowledge for Development Program*, 1–3.
- Morgan, W. J. (2005). Local knowledge and globalization: Are they compatible. *Globalisation, education and culture shock*, 35–47.

- Muller, M. R. (2013). Protecting Shared Traditional Knowledge: Issues, Challenges and Options; ICTSD Programme on Innovatio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 Paper No. 39;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va, Switzerland.
- Nakashima, D., Prott, L., & Bridgewater, P. (2000). Tapping into the world's wisdom. UNESCO Sources, 125: 12.
- Ndegwa, W., Rao, K.P.C., Ngugi, R.K., Kwenia, K. (2010). Adaptation Insights. Kenya, November 2010. No. 4(<http://www.idrc.ca/EN/Documents/Adaptation-Insights-Kenya-local-climate-forecasting.pdf>)
- Neiland, A. E., Bennett, E., & Townsley, P. (1995). Participatory Research Approaches – What Have We Learned?. The experience of the DFID Renewable Natural Resources Research Strategy (RNRRS) Programme, 2005.
- Ocholla, D. (2007, September). Marginalized knowledge: An agenda for indigenous knowledg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with other forms of knowledge. International Review of Information Ethics, 1–10.
- Oluwatoyin Dare, K. (2009). Situating local knowledge within development agenda: Some reflections.
- Parajuli, D. R., & Das, T. (2013). Indigenous Knowledge And Biodiversity: Interconnectedne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y Research, 2(8).
- Ramdasi, P., & Louafi, S. (2006).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and folklore: the way forward. Les synthèses de l'Iddri, (8).
- Roussel, B. (2003). La Convention sur la diversité biologique: les savoirs locaux au cœur des débats internationaux. Les synthèses de l'Iddri, (2).
- Senanayake, S. G. J. N. (2006). Indigenous knowledge as a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2(1), 87–94.
- Sillitoe, P. (2010). Trust in Development: Some Implications of Knowing in Indigenous Knowledg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6, pp. 12–30
- Smith, Thomas Aneurin. (2012). At the Crux of Development? Local Knowledge, 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n Tanzania. Ph. D Thesis.
- Srikantaiah, D. (2008). Indigenous Knowledge Initiatives at the World Bank,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oQuest.

- Talyarkhan, Surmaya, D. Grimshaw, and L. Lowe. (2004). Reaching the Last Mile: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In Fifth European Conference on Organizational Learning, Knowledge and Capabilities, Innsbruck.
- Twarog, S., & Kapoor, P. (2004). Protect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national experiences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UN.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3). Best Practices and available tools for the use of 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for adap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gender-sensitive approaches and tools for understanding and assessing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echnical paper. 31 October 2013.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reliminary review by the Coordinator of the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on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relation to the Decade. Substantive session of 2004. 25 June 2004.
- United Nations. (1993).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48/163.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Forty-eighth session document
- Unnikrishnan, P. M., & Suneetha, M. S. (2012). Bio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and Community Health, Strengthening Linkages. Xpress Pte Ltd., Singapore.
- Uvin, P. (2007). From the Right to Development to the Right-Based Approach: How 'Human Rights' Entered Development.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4-5. 597-606
- Weiler, H. (2009). Whose knowledge matters?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Entwicklung als Beruf*, 485-496.
- Woytek, R., & Gorjestani, N. (1998). Indigenous knowledge for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Knowledge and Learning Center, Africa Region, World Bank.
- Yigzaw, M., & Boudreau, M. C. (2010). Indigenous Knowledge Creation Practices: The Case of Ethiopia.

웹사이트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웹사이트
(<http://www.iwgia.org/>)

□ 참고 1. 전통지식의 정의(UN 기구 중심)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Developed from experience gained over the centuries and adapted to the local culture and environment, traditional knowledge is transmitted oral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tends to be collectively owned and takes the form of stories, songs, folklore, proverbs, cultural values, beliefs, rituals, community laws, local language and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lant species and animal breeds. Sometimes it is referred to as an oral traditional for it is practiced, sung, danced, painted, carved, chanted and performed down through millennia. Traditional knowledge is mainly of a practical nature, particularly in such fields as agriculture, fisheries, health, horticulture, forestr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general.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refer to the understandings, skills and philosophies developed by societies with long histories of interaction with their natural surroundings. For rural and indigenous peoples, local knowledge informs decision-making about fundamental aspects of day-to-day life. This knowledge is integral to a cultural complex that also encompasses language, systems of classification, resource use practices, social interactions, ritual and spirituality. These unique ways of knowing are important facets of the world's cultural diversity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locally-appropriate sustainable development.

○ Owing to ongoing negotiations, an accepted definition currently does not exist within the forum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however, WIPO makes the following points:

Traditional knowledge is the knowledge, know-how, skills, innovations or practices that are passed between generations in a traditional context and that form part of the traditional lifestyle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who act as their guardian or custodian.

○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refers to the multi-faceted arrays of knowledge, know-how, practices and representations that guide societies in their innumerable interactions with their natural surroundings. This interplay between people and place has given rise to a diversity of knowledge systems that are at once empirical and symbolic, pragmatic and intellectual, and traditional and adaptive.

○ The IPBES working definition goes on to further propose using Berkes' definition of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which is:

A cumulative body of knowledge, practice and belief, evolving by adaptive processes and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by cultural transmission, about the relationship of living beings (including humans)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ir environment.

* 출처: UNFCCC, 2013

□ 참고 2. 전통지식과 기후변화 지식 플랫폼

- **The technology for agriculture platform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teca.fao.org>>, provides an online platform for practical information on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help small producers in the field.
- **The Local Coping Strategies Database of the UNFCCC**, available at <<http://maindb.unfccc.int/public/adaptation/>>, provides examples of knowledge related to coping with weather hazards, including shifting seasons, drought, erratic rainfall, floods, sea level rise, storms, extreme heat and cold and vector-borne diseases.
- **Climate Frontline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vailable at <www.climatefrontlines.org>, an inter-agency platform for indigenous knowledge and climate change, provides a repository of indigenous observations and knowledge of climate change, including discussions on early impacts, coping with change, rituals and spirituality, and impacts of climate mitigation action.
- **Advance Guard**, available at <www.ias.unu.edu/resource_centre/UNU_Advance_Guard_Compendium_2010_final_web.pdf>, is a publication by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Traditional Knowledge Initiative that provides a compendium of case stud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mitigation and indigenous peoples.
- **Weathering Uncertainty: Traditional Knowledge for Climate Change Assessment and Adaptation**, available at <www.ipmpcc.org>, is a publication by UNESCO and UNU that reviews scientific and grey literature and analyses key issues and emerging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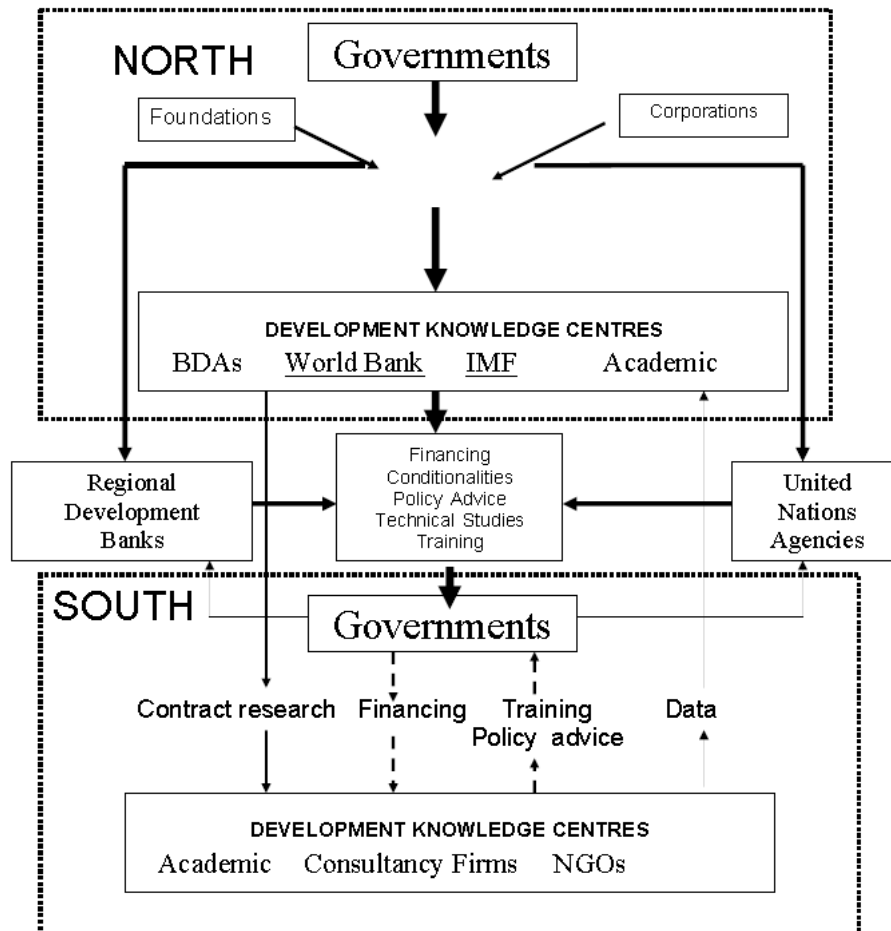
* 출처: UNFCCC, 2013

□ 참고 3.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이유		
도덕적 이유	법적 이유	공리주의적 이유
토착민/지역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 실행	국제사회의 조약 및 규범 준수 (예. CBD, 세계인권선언, 식물유전자원 국제 조약 등)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복지(보건과 식량 안보) 및 최저생활비 제공
		국가 경제와 복지 혜택
		글로벌 경제와 복지 혜택
		생물다양성과 보존을 위한 개선된 지속가능한 관리

* 출처: UNCTAD, 2014(p.146) (Protecting and Promoting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National Experiences, and International Dimension)

□ 참고 4. 선진국-개도국(North-South) 개발 지식 위계



* 출처: Girvan, 2007:18

□ 참고 5. IFAD의 지역사회의 웰빙, 소득,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역량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 자산으로서 문화 유산(Cultural heritage)과 정체성

- 빈곤한 농촌 주민, 토착민, 소수민족들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IFAD는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자산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하고자 한다. IFAD는 지역사회의 유무형 유산을 구성하는 전통지식,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및 천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 사전통보승인(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 토착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있어서 회원국가 협력하는 경우, IFAD는 토착민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회원국이 제안한 해당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특히 토착민의 토지와 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일 경우, IFAD는 차용인 또는 원조수혜자가 토착민과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하는데 대해서 논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IFAD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런 논의와 동의를 고려한다. 프로젝트 평가를 통해 IFAD는 그들이 (a) 잠재적으로 토착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를 회피할 수 있고, 또는 (b) 회피할 수 없다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경감시키거나 보상해주는 방안을 포함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 지역기반 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 지역기반 개발은 주민의식, 투자 기여와 지속가능성, 자립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empowerment)를 높여준다. 토착민과 협력을 통해 IFAD는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관련이 있는 (특히, 토착민의 거시적 접근방법에 적합한) 지역기반 개발 접근법을 따르고 강화한다

* 영토 및 자원(Land, territories and resources)

- 토착민 정체성의 핵심은 그들의 생계의 기본을 이루는 선조들의 영토와 자원에 대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자원 접근성과 관리는 복잡한 관습법과 체계에 따라 규제된다. 차용하는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정책에서, 그리고 토지 접근성 및 소유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IFAD는 토착민에 의한 형평성있는 토지 접근성을 촉진하고 그들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토지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토착민의 지식

- 토착민은 전세계 많은 부분에서의 독특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자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IFAD는 프로젝트 투자에 있어서 토착민의 지식과 실행에 가치를 둔다. 이러한 자산에 기초하여 친빈곤층 연구를 지원하는데, 이때 전통 지식 및 실행법과 현대 과학적 접근법을 혼합한다. 토착민의 지식은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전통지식과 혼합하는 새로운 방식은 토착민이 그들의 생계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FAD는 지역사회와 국가 농업연구센터 및, CGIAR과 파트너십을 촉진하고자 한다.

* 역량개발(Empowerment)

- Empowerment는 모든 빈곤층과 소외받은 인구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IFAD는 연수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역량개발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토착민의 empowerment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원을 확보 및 관리하고 자신의 개발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역과 국가 정부, 민간 기업, 다른 이해 집단과 협력 및 협상할 수 있다.

* 출처: IFAD(2009)

□ 참고 6. 전통지식의 식량 안보 개선 및 농촌개발에의 기여도

식량안보 측면에서 전통지식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유용성, 접근성, 활용 측면과 전통지식이 기여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아래 표 참조). 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한 논의에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 천연자원 악화(자연 서식지 감소, 산림벌채, 토양악화), 농업 생산성 감소, 전통 경작 방식 감소, 천연자원 접근 및 활용에 대한 분쟁 등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사업 실행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식량안보 이슈	전통지식의 가능 역할 및 기여
유용성	- 증대된/지속가능한 생산 - 기술 - 더 나은 저장 시설 및 손실분 감소
접근성	- 생산 안정성(생태 안정 생산) - 시장, 서비스, 정보, 권리, 사회적 권리 개선 - 구매력 증대
활용	- 소비 - 위생, 식수, 식량안보, 질적 개선
기여 요건	- 연구 - 식량 위급성 준비 - 소비자 및 생산자의 신체적 건강

농업 연구와 농촌 개발은 전통지식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을 보유한 대부분은 나이든 세대이며 그들이 가진 지식을 물려주게 된다. 동시에 빈곤 감소 및 식량 안보 해결을 위한 수요는 대규모의 해결책을 요구하게 된다. 많은 전통지식 실행사례는 지역화되어 있고 실제 작용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쉽게 확대할 수 없다. 연구는 가능한 많은 실행사례를 기록하고 선정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최선의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례로 케냐에서 개발한 약용식물과 향료식물의 상업적/공업적 활용을 들어, 민간 분야가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많은 농작물과 채소의 경우 그런 방법이 모두 적용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Mkapa, 2004:26-27)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 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건의 프로젝트 사업, 1만여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만여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지구촌 행복시대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KOICA ODA연구팀(ODA Research Team)

KOICA ODA연구팀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하고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ODA연구팀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ODA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조화시킨 바람직한 개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ODA연구팀은 그동안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KOICA 연구보고서

-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연구
-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 다자기구 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 : 멀티바이와 양자사업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Post-2015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ODA 지원방안
-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수행체계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제발전이론의 변천과 원조 전략 : 경제적 관점에서 KOICA의 향후 연구 제안
- 개도국 청년고용정책과 ODA :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형성 논의를 중심으로
- 초·중등 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 타 해외 원조기관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체계연구
-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 모델 연구
- 개발도상국 선거제도 지원 ODA연구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KOICA 사업 적용을 위한 타 기관 사례 연구
- 타 해외원조기관 정책수립 및 사업수행체계 사례연구 : DFID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 가족계획 및 생식보건 ODA 프로그램 현황 연구
- 교육분야 ODA 성과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PDM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 보건의료 무상 ODA의 협업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접근법 활용방안
- 한국적 개발 모델의 교훈 : 효과적 개발 협력과 제도-정책 시너지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역량강화활동 평가 가이드라인
- 민관협력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 CSO 국제개발 질적 평가 매뉴얼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최종보고서
- 보건의료체계강화 세부전략 연구 : 세부전략 매뉴얼
-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 국제개발협력지 2014년 1호
- 21세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동향 : 제1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모니터링과 2014년 멕시코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 글로벌 CSR 사례집
- 국제 새마을운동 ODA사업 표준모형 구축과 콘텐츠 개발
-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4D) 가이드라인

개발과 이슈

- [8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와 합의
- [9호]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와 우리나라 ODA에 주는 시사점
- [10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 [11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 [12호] 모두를 위한 품위 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사무총장 보고서
- [13호]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사업 사례 연구 : 새마을 운동 ODA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 [14호] 임팩트투자 및 DIB 논의와 시사점

Working Paper

- [2014-1] Forging 'Soft' Accountability in Unlikely Settings : The Prospects of Mutual Accountability in South-South Cooperation
- [2014-1] Revisiting the Roles of Development Aid: Resonated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연구자료 ODA 연구 2014-19-157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 행 2014년 7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척수협회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물 등록번호 11-B260003-000439-01
ISBN 978-89-6469-250-9 93320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전통지식 개념 도입:
지역개발사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